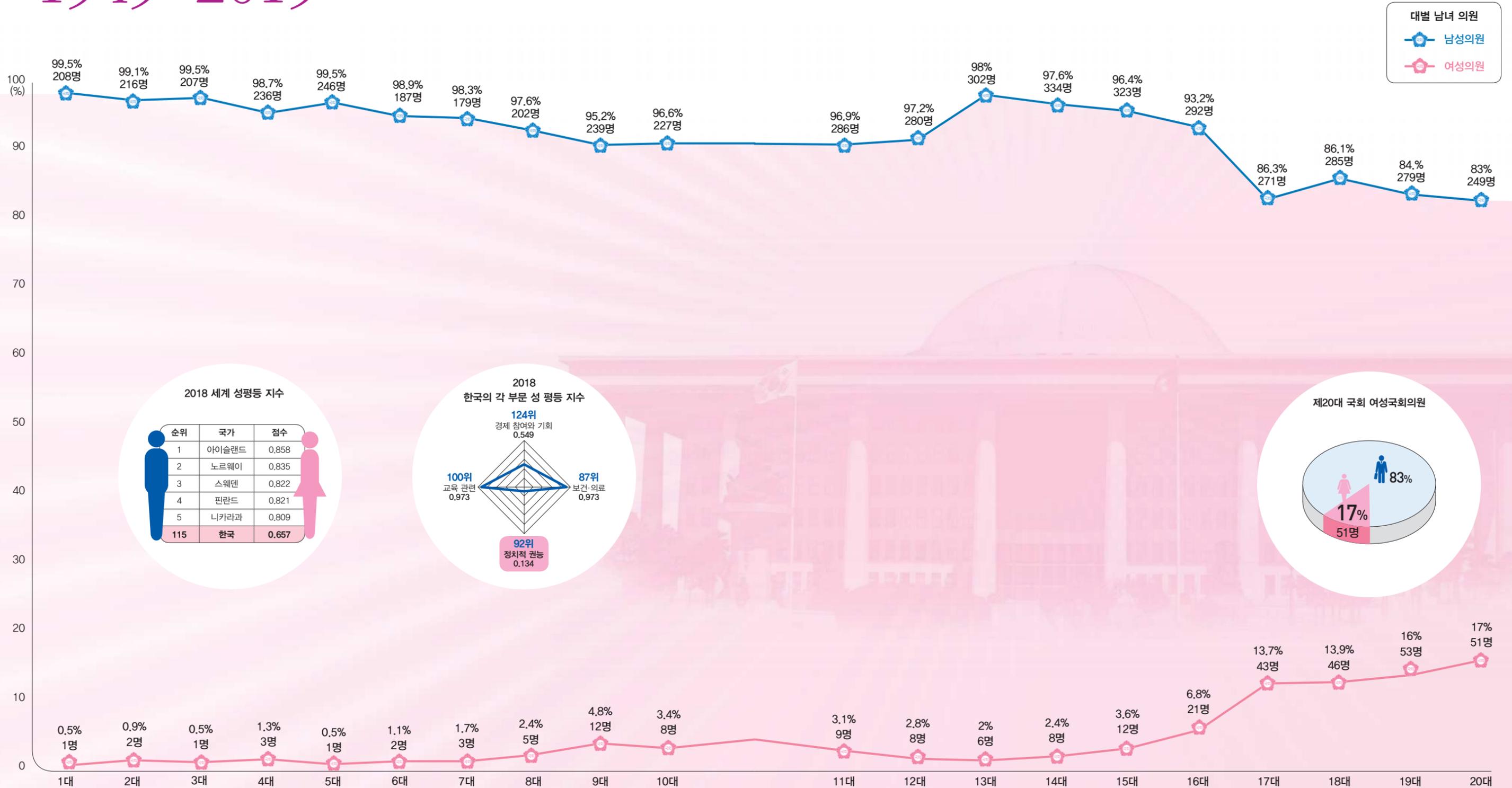


여성의회정치 70년 1949-2019



Contents

VOL. 7 / 2019

특집 여성정치70년

- 6 **남녀동수 3법 개정으로 70년 여성의회정치에 응답하자**
· 신 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 9 **좌담회 _ 여성단체장에게 듣는다**
남녀동수 의회정치를 앞당기는 길
- 14 **먼저 동등한 수를 허하라**
·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 16 **여성을 위한 정당은 없다**
· 박진경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 18 **여성과학기술인 국가 핵심인재로 육성해야**
· 신용현 국회의원
- 20 **성평등의 해법은 젠더교육에 있다**
·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

가족 예찬

- 22 **초대석 _ 가족정책도 여성정치인이 뭉쳐야 힘이 세진다**
·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24 **함께 걷는 길**
· 정성호 국회의원
· 박성중 국회의원
- 28 **앙케이트 _ 나에게 가족은?**
· 너에겐 비타민이니? 나에겐 콩이야
- 30 **젠더거버넌스**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 34 **특별기고 _ 가족 관련 법제의 미래**
·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회
- 36 **포용하는 사회 _ 다문화가족, 아직도 이방인인가?**
· 신숙자 한국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협회 고문



- 38 **여성의정장학사업 줄인**
· 여성의정 장학사업은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46 **칼럼**
· 한반도 평화시대 여성정치의 자리
· 체육계에 할당제를 다시 외치는 이유
· 임시의정원 여성의원 이야기
· 비리 사립유치원 해결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
· 여성국회의원 패널조사가 말해주는 것들
· <공감>을 찾아가다
- 58 **여성정치인 가족**
· 나현선 나경원 국회의원 여동생
- 60 **5월이 있는 풍경**
- 62 **새로운 꿈을 펼치다**
· 김용미 건축사
- 66 **여성 인물 열전**
시인 국회의원 모운숙
- 68 **보고 싶은 얼굴**
김모임 제11대 국회의원
현애자 제17대 국회의원
장하나 제19대 국회의원
- 여성정치 소식**
- 70 한국여성의정은
- 72 국회는
- 75 지방의회는
- 76 정부는
- 부 록**
- 78 **역대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위원장 현황**



표지 이야기
여성의회정치 70년(1949~2019년)을 맞아, 역대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위원장 28명을 위원회별로 표지에 담았다.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발행일: 2019년 4월 30일
발행인: 상임대표 이연숙
편집위원: 유승희(위원장), 신 명, 이경숙, 김혜성, 이두아, 민병주, 김삼화, 김선임, 이미래
편집팀: 이은옥, 남혜경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2호
전화번호: (02) 784-0531 / 788-3341~2
팩스: (02) 788-0717
이메일: kwpn2013@daum.net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28
간행물 허가번호: ISSN 2466-0884
홈페이지: www.kwpn.co.kr
출판: 여성의정
디자인·제작: ㈜시마스커뮤니케이션
ISSN: 2466-0884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한국여성의정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녀동수 3법 개정으로 70년 여성의회정치에 응답하자



신 명
• 제17대 국회의원
•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대한민국 여성 의회정치역사는 1949년 1월 보궐선거에서 당시 임영신 상공부장관이 여성 최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시작한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는 여성후보자 18명 전원이 낙선해 남성 198명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낙선한 박순천 의원(여성 최초 5선 의원)은 여성계를 향하여 “이번에 한 사람도 당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다음에도 이번 같은 흠아비 국회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 여성이 총궐기 해야겠다.”고 외쳤다(『세상을 바꾼 여성정치인들』, 49쪽) 그러나 50년간 가까이 한 자리 수에 머물던 여성 국회의원은, 각계 여성들의 노력으로 제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제17대 국회에서는 이를 50%로 강제하는 조항을 마련하면서 두 자리인 10%대에 진입하였다.

대한민국 여성국회의원은 70년 의회 역사 속에서 209명(5선 4명, 4선 4명, 3선 12명, 재선 35명, 초선 154명)이 배출되었다.

여성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입법활동 성과 커져

제헌의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은 대를 거듭할수록 입법성과 와 정치발전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 의회 내 수적 열세에도 여성관련 입법 등 활발한 의회활동으로 여성의 위상변화와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첫째, 여성국회의원의 최초 의안발의는 제1대 국회 임영신 의원의 『미국 대통령, 장개석 총통 및 比國(필리핀)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관한 결의문』이었다. 최초 발의법안은 1958년 제4대 김철안 의원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었고, 그 다음 발의는 1971년 제8대 국회 김윤덕 의원의 『미수복지구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었다.(『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의정활동편)

둘째, 의안발의 건수를 보면, 제1대부터 제15대까지 여성의원이 한자리 수에 불과하여 의안발의도 99건으로 남성국회의원의 1.6%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국

회의원 수가 증가하면서 제16대 5.1%, 제17대 17.7%, 제18대 15.9%, 제19대 18.2%로 계속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도 제17대를 기점으로 급상승하여 제17대 26.5건, 제18대 40.1건, 제19대 55.3건으로 남성의원의 18.5건, 36.1건, 47.7건 보다 항상 앞섰다. 발의 건수가 100건이 넘는 의원도 제17대 1명, 제18대 2명, 제19대 들어서는 8명으로 늘어났고 제20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70년 동안 발의한 법률 중 20회 이상 발의한 법률로는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이같이 여성의원의 입법활동은 시대 상황과 그 수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발전해왔다.

특히 제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의안 발의 참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비례대표 제도로 전문직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관련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원이 증가하면서 여성 및 가족관련 의제를

입법과제로 가시화할 수 있었다. 남성 독점의 의회에서 배제되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호주제, 남녀동일 가치노동 및 임금, 일·가정 양립 등 여성 및 가족 의제를 입법화하여 입법 활동의 질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넷째, 여성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보면, 제1대에서 국제관계 전문가인 임영신 의원이 전문분야인 외교국방위원회에 배정되었고, 제2대부터 주로 보건사회, 문교, 외교 등에서 활동하였다. 제11대에 법조계 출신인 황산성 의원은 최초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여성의원이 증가한 제16대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중 11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제17대는 14개 상임위원회에, 제18대 이후부터는 전 상임위원회에, 제19대와 제20대는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특정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다섯째 상임위원회의 여성상임위원장을 보면,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8명의 여성위원이 선출되었으나, 여성가족위원회 14명을 제외하면 14명에 불과하다. 최초 상임위원장으로 제3대 김철안 사회보건위원장, 제14대 후반기에는 여성특별위원회(현 여성가족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초대 여성특별위원장이우정 의원 이후 14명 전원 여성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7대 전반기에 김희선 정무위원장, 이미경 문화관광

역대 국회의원의 의안 발의 현황

| 구분 | 국회의원 수 | | | 의안 발의 건 | | | 1인평균 발의건 | |
|--------|--------|------|------|---------|--------|-------|----------|-------|
| | 총계 | 여성의원 | 비율 | 총계 | 여성의원 | 비율 | 남 | 여 |
| 합계 | 4,972명 | 244명 | 4.9% | 41,429건 | 6,055건 | 14.6% | 7.5건 | 24.8건 |
| 1대-14대 | 3,801 | 68 | 1.8 | 5,042 | 49 | 1.0 | 1.3 | 0.7 |
| 15대 | 299 | 12 | 4.1 | 1,021 | 50 | 4.9 | 3.4 | 4.2 |
| 16대 | 273 | 21 | 7.7 | 1,890 | 96 | 5.1 | 6.5 | 4.6 |
| 17대 | 299 | 43 | 14.4 | 6,106 | 1,140 | 18.7 | 18.5 | 26.5 |
| 18대 | 299 | 47 | 15.7 | 11,564 | 1,844 | 15.9 | 36.1 | 40.1 |
| 19대 | 300 | 53 | 17.6 | 15,806 | 2,876 | 18.2 | 47.7 | 55.3 |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2편(의정활동편) 44쪽을 참고 하였으며, 여성 국회의원 수는 대별 보선·승계 포함하여 재구성하고 제20대 의정활동은 제외함.

위원장(17대), 제18대 전반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제19대 전반기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제19대 후반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제20대 전반기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제20대 후반기 박순자 국토건설위원장, 인제근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활동하였다. 이렇듯 여성의원 수와 선수가 늘어나면서 상임위원장 및 다양한 분야에 참여가 늘어 성 평등국회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동수 의회의 새 역사를 위하여

지난 7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낸 원동력은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강하고 생동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남녀동수의회 실현이 필수 과제가 되었다.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의장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여성이 공적으로 힘을 가지면 ① 간과된 문제를 쟁점화하고, ② 반대에 직면한 아이디

어를 지원하며, ③ 묵인 되어온 남용을 종식시키는 일을 신뢰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이 50% 이상 의회에 진출한 아일랜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었다.

우리도 남녀동수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25일 남녀동수 관련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박영선의원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에서 여성 후보자 50% 추천을 의무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개선 및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구성될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 6선의 여성의원 탄생은 물론, 남녀동수 의회의 새 역사를 다시 쓰자. 이것이야말로 최초 여성 당수이자 5선인 박순천 의원이 1948년 외친 여성총궐기에 대한 실천이 될 것이다. ♡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여성국회의원 70년, 1948-2017

여성의정 | 총 4권 | 180,000원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여성단체장에게 듣는다 남녀동수 의회정치를 앞당기는 길

대한민국 국회에 여성 의원이 51명(17%)이 되기까지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여성의원 두 자리 숫자는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이며, 지난 해 헌법에 남녀동수 규정 신설도 여성계가 힘쓴 결과이다. 지금 국회에는 ‘남녀동수 관련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출직 남녀동수 의회정치 운동의 완성을 위해 『여성의정』 7호는 여성단체의 역할과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시 - 4월 5일 오전 7시 30분
- 좌장 - 유승희 | 기관지 「여성의정」 편집위원장
- 참석 - 한영수 | 한국YWCA연합회 회장 백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양금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유승희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신 단체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성 정치의 세력화는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어렵다. 여성정치 70년 동안 국회의원이 51명이면 1년에 한 명도 늘지 못한 셈이다. 아직 정치에서 성평등은 요원하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위해 남녀동수 관련 3법은 아주 중요하다. 남녀동수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의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 정치지형이 좋지 않았고 안주한 원인이 있다. 현재 남녀동수라는 거대담론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여성들의 땀집이 약하게 여겨진다. 지금쯤 여성단체 연대의 폭과 내용, 역량을 평가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운동 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지역별 토론을 바탕으로 대중홍보 할 계획’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지역별로 10번 넘게 토론회를 가졌고 올해도 11군데에서 할 예정이다. 남녀동수 민주주의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토론해 왔는데 우리들의 목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토론을 바탕으로 여러 활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단체에 강의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국감과 국회, 지방의회의 모니터링으로 여성관련 의제들을 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교육이 끝난 직후에 거리에서 플래시몹 같이 무겁지 않게 흥미를 끄는 대중 홍보를 준비 중이다.



최금숙 2015년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각 당에 방문,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전체 후보자의 30% 만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라는 조항을 노력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녀동수를 주장해야 30%라도 이뤄질 것이니 30% 주장을 버리고 바로 남녀동수 이슈로 갈 것인지를 두고 내부에서 논란 중이다.

‘30% 지역구 공천 의무화를 위해 각 당에 압력활동 하겠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에서는 남녀동수라는 의제가 공식 담론으로 채택되지 못해서 평가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지난 해에는 정치개혁 의제에 집중했다. 남녀동수를 의제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회원 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온다. 정치영역 뿐 아니라 공공영역, 민간영역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큰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남녀동수 관련 법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힘을 보탤 것이다. 일단 올해는, 여성 30% 지역구 공천 의무화를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고 보고 각 당에 압력활동을 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한영수 우리는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는 게, 단체의 원칙이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원하는 의제를 만들어서 정당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남녀동수 관련 법 발의 사실과 주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여성의원과 여성단체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법안 발의 때 보도자료 말고도 의원실로부터 자세

한 내용과 취지, 향후 계획을 담은 내용을 여성단체에 폭넓게 배포하였다면 설득력과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다.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남녀동수 관련 법이 발의된 사실과 주요 내용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유승희 남녀동수정치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남녀동수 관련 3법의 통과를 위해 여성단체의 역할과 여성단체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최금숙 현재 남녀동수 3법이 소관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정개특위가 1월 말 이후로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개회를 위한 합의를 이뤄내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미순 단체 입장에선 힘들고 섭섭한 게 많다. 지난해에 거의 길바다에서 살았을 정도로 주말마다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여성 성폭력 문제에 집중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사회적공명이 그렇게 더디다. 자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사회에서 듣지 않는다. 최근 큰 화두가 된 성폭력도 역시 그 뿌리는 상차별에서 기인한다, 여성의 대표성을 키워야 하는 건 백번 옳은 말이다.



양금희 그렇다. 현장에서 일하다 하다 보면 벽이 너무 두꺼워서 가끔씩 좌절한다. 의원평가위원회에서 여성관련 의제를 다루는 의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지만 참석한 위원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게 보이더라.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소리 높이는 게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다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있어 늘고 민이다.



유승희 여론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비례대표 할당제를 주장할 때 여권이든 야권이든 힘을 합해 딱 띄운 키워드가 ‘여성’ 이었다. 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한다. 아직도 모자라는 성평등을 이루어내려면 여성의 대표성 강화밖에 없다. 힘드시겠지만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는 길 밖에 없다.



백미순 선출직 뿐 아니라 임명직에도 남녀동수의 정신의 필요하다. 이 정부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장·차관 뿐 아니라 정부 임명직에도 50% 되도록 전략을 짜야 된다. 모든 단체가 여성대표성 강화라는 데 의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여성 정치인의 네트워크 강화와 육성 플랫폼이 필요하다’



최금숙 여성정치인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정치, 경제 아카데미가 필요하고, 여성정치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현역 여성정치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여성정치인을 육성하는 플랫폼도

부족하다. 각 정당과 여성단체가 협력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도 남녀동수 관련 3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여협에서는 성명서 및 연간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행동하겠다.



유승희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의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 평가와 성과를 단체별로 도출하고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기구가 중심점과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상반기에 그 기구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니 단체들이 힘을 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금희 한국유권자연맹은 여성 의원 비율 50% 법제화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50%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주장해왔다. 현재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등 비례 대표제의 선거제도 개선에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다양한 여성 정치 진입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여성 의원들의 남녀동수를 향한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한영수 회원 YWCA가 주체가 되는 2020년 총선 TF를 구성할 예정에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정책 제안과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해왔는데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덧붙이자면 과거 정파를 초월하여 여성대표성 확대를 주장했던 여성의원들을 현 국회에서는 볼 수 없어 아쉽다.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이 남녀동수민주주의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는
최소 30%는 넘어야'**



유승희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7%가 최소 30%까지는 올라야 한다. 그래야 성평등 사회로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여성정치인들을 상징성으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증견 여성정치인을 여성들이 지켜주는 것도 그 대안이다. 남녀동수 3법이 발의에 이어 이를 감시하고 지원할 남녀동수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 여성공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발한 논의와 의견을 주신 단체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남녀동수라는 큰 비전을 향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행을 다! 담다

누구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의 5개 모바일뱅킹 어플을 하나로 통합한 NH스마트뱅킹. **시대를 앞서나가는(one up)** 스마트한 모바일금융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한번에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 one up**



한번에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 one up**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화면을 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키보드뱅킹
문자나 SNS 실행 중에도 모바일 키보드를 이용한 계좌 송금이 가능합니다.



AI챗봇 (상담봇)
음성 및 텍스트를 활용한 뱅킹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OTP
기존 실물 OTP를 대체한 1인 1폰에서만 발급되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보안성과 편리성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2018-2732 (2018.12.05.~2019.11.30.)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개발상품



다양한 농업·농촌 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민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동등한 수를 허하라



이택광
 • 경희대학교 교수
 • 계간 미래와 희망 편집위원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1931년 전국여성직업협회에서 특강을 했다. 강연 내용은 직업여성들에게 주는 조언이었다. 이 강연은 자신의 문학에 대한 것이었다기보다, ‘여성과 직업’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다소 시사적인 것이었다. 전국여성직업협회는 그 유명한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인 서프러제트(suffragette)가 만든 여성참정권연맹의 후신이다. 이 협회는 참정권을 획득한 후에도 계속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개편된 조직이었는데, 이런 취지에서 울프는 ‘여성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던 것이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침실에서 밤마다 펜을 들고 글을 썼던 울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런 자신을 울프는 ‘운 좋은 소녀’라고 묘사한다. 첫 원고료를 받은 울프는 가장 먼저 그 돈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페르시아고양이를 샀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어린 울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원고료를 받아서 그 돈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썼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취향을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위해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울프는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이렇게 울프가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직업과 여성의 독립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울프가 거듭 지적하듯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직업이었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울프는 자신의 견해를 협회의 젊은 회원들에게 피력하고자 했다.

물론 이런 울프의 생각은 독립적인 여성과 직업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당대 여성들의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때는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법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이런 점에서 울프가 한 강연은 상당히 시의 적절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울프가 지적 직업으로서 작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여성은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편견이 만연해 있던 시절에, 울프는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여성도 충분히 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오늘날은 울프의 시대와 비교해서 과연 전문직 여성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다. 전문직으로 많이 여성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울프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진출’한다는 것은 결국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산술적인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하게 될 균형을 울프는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울프는 이런 균형 이상의 것을 위해 여성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을 먼저 맞추는 것일 테다.

울프는 18세기를 여성해방에서 중요한 시기로 보는데, 그 까닭은 이때부터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써서 자기를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산술적인 숫자의 균형이 18세기부터 맞춰졌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숫자가 많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의적 성격을 가진 의회에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여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숱한 노력들은 상당한 결실을 맺긴 했지만, 또한 그만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윤리적 측면에 국한한다면, 사회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예속〉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입장 정도만 수용해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밀과 같은 관점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태도이기도 한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근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공리주의

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에게 최대한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 근대의 정언명령이라면, 사회 구성원 모두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생각도 이런 발상에서 본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듯 최초로 여성차별을 문제 삼은 사상은 자유주의였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어쩌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성운동은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면 여성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하고, 여성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런 전제 또한 지극히 남성 위주로 여성 문제를 바라본 관점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주의에서 옹호하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여성에 한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통념을 낳는다.

시민권이라는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여성만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보편성은 자격을 갖춘 ‘시민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 문제였다. 의회에서 여성의원을 수를 늘리고 남성의원과 균형을 맞춰야하는 까닭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먼저 숫자부터 동등하게 바로잡아야한다. 그것이 더 나은 시민권을 여성, 더 나아가서 소외 받는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

여성을 위한 정당은 없다 '대한여자국민당'에서 '페미당'까지



박진경
 • 한국여성정책 전문위원
 • (전)인천대학교 교수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국회 앞에는 “여성 정치인, 51명을 51%로”라는 펼침막을 든 청년여성들이 51명의 여성국회의원 실물 가면을 쓴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최측인 ‘페미당 창당 준비모임’이 반갑기 그지없다. 우스갯소리로 회자되던 여성당, 2019년에서야 드디어 그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다니...

최초 여성정당, '대한여자국민당'을 기억하다

하지만 우리는 해방정국에 탄생한 '대한여자국민당'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해방 이후 1945년 8월 17일, 임영신, 이은혜, 김선, 박현숙 등이 모여 발족인 대회를 열고, 9월 18일 명실공히 한국 최초의 여성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당시 강령을 보면 “남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민주사회의 건설, 근로자와 여성생활을 향상시키는 민주경제의 실현, 민족문화 발전을 통한 세계평화·인류평화에의 기여 등” 지금 봐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 강령을 마련하였다. 이후 1949년 1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유교적 정서가 강한 경상북도 안동을구에 대한여자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임영신이 그것도 당시 남성 정치거물들을 제치고 당선되어, 최초로 여성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비록 얼마 후 대한민국민당에 흡수되긴 하였으나 3,4,5대 부통령 후보를 내기도 하는 등 여성정치 역사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록임에는 분명하다.

정당, 그곳에 여성이 있었다

잠시 여성해방구가 된 최초의 여성정당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이후 한국사회 정당 속 여성들은 어떻게 존재하였을까? 여성 당대표가 연이어 배출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의 정당들은 여성들을 단지 선거에서 표를 동원하기 위한 활동가로 보거나, 정당이 대중적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들러리로서만 활용해왔다. 정당은 선거제도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당의 의석수 확대를 위해 당선가능성 높은 여성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에서부터 할당제 등 여성공천을 위한 정당 제도마련, 여성공천과 당선까지 정당은 여성정치

참여의 직접적 행위자이다. 51명이라는 초라한 여성국회의원 숫자는 70여 년간 한국의 정당이 직무유기를 해왔음을 말해준다.

지난 제5공화국까지의 정당 속 여성을 살펴보면 여성 최초 국회의원인 임영신 의원과 최초의 제1야당 당수인 박순천 의원 등 몇몇 걸출한 여성들의 독보적 활동이 눈에 띄긴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야 과거 여성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보던 것에서 여성당원을 교육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당내 여성정당인들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등장한다.

남녀동수 정당을 기대하며

제6공화국 이후 1987년 민주정치 발전에 힘입어 정당 내 여성조직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여성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여성국이 여성조직활동과 정책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지부에도 여성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6월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경우 410만 명의 당원 중 여성이 70%를 차지하였으나, 237명의 지구당 위원장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고, 당무위원은 45명중 2명, 중앙상무위원은 10,633명 중 791명(7.4%)에 그쳐 여전히 정당내 영향력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 의정,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1편, pp135-137참조)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는 대의원대회 구성에 여성참여 의무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저조한 여성참여 현

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당이 광역과 기초의회 선거에 여성후보 발굴과 육성을 시작했다. 2000년 들어서는 정치개혁과제로 정당 내 여성정치발전기금 설치 의무화되면서 정당이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당들은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상설 기구를 설립하기도 하고, 전국여성위원회 등을 통해 각종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발굴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10년 들어서는 정당들이 당헌·당규에 여성정치참여를 명문화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각종 당직 및 공직 후보추천 시 여성할당 명시, 공천과정 및 경선 시 가산점 부여,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과 관련 기구 설치 등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단적으로 51명의 여성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은 26명으로 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결국 여전히 “여성을 위한 정당은 없다”고 꾸짖힐 수밖에 없다.

프랑스 헌법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 '동수민주주의'를 위해 남녀동수법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남녀동수는 정당성은 물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여성국회의원수가 최하위 국가인 한국이야말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라도 동수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정당에서부터 시작하자”.



◀ '페미당 창당모임' 등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국가 핵심인재로 육성해야



신용현
 • 제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전)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과학과 ICT 기술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다. 개방성, 융합성,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한 4차산업 혁명시대는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성, 공감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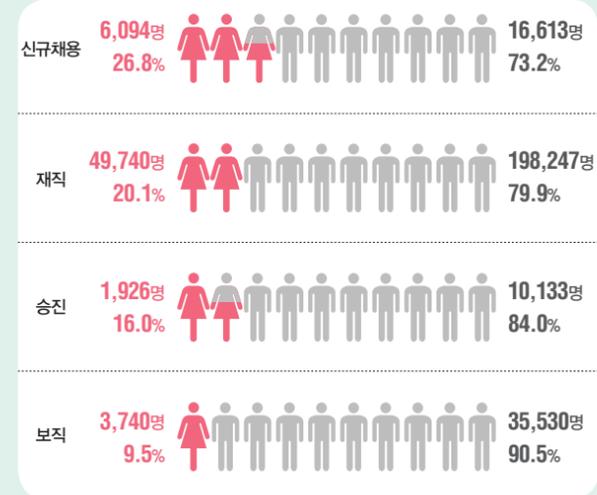
특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공계 분야의 경우 여성 참여 확대가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므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양한 시책을 펼치면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어렵게 진입해도 고위직급에선 현저히 낮아져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과학기술계 인력 수급 측면에서 보면 여성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2017년 기준 자연계열 학사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54.2%로 여성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공대를 포함한 이공계열 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학사 32%, 석사 30.5%, 박사 2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성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발표한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비율은 20.1%에 불과하다. 게다가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2%로 남성(17%)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최근 10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 또한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력이 어렵게 과학기술계에 진입하더라도 고착화된 남성중심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된다. 신규채용 과학기술인력 중 여성비율은 26%대를 상회하지만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16%,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9.5%에 그쳐 고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경력단계별 현황



연구과제책임자 규모 및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기준 10.2%에 불과해 여전히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연구과제의 경우 여성 비율이 12.3%인 반면 10억 원 이상 대형 과제의 경우 여성비율이 8.8%로 나타나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핵심 연구자와 관리자가 되도록 정책 바뀌어야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채용목표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비율이 상승했고, 여러 적극적 조치들이 적용되어 여성인력 활용의 물꼬를 터주었으나, 지금은 담보상태이다.

지금까지 우수한 이공계 여성인력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이들

이 핵심 연구자·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 재직비율과 보직비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여성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연적인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재직 비율 목표제나 보직비율 목표제 도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

둘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확립과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적 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를 줄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 과학기술의 특성상 경력단절 후 프로그램보다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롤모델이 되어줄 여성교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5%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발의되어 있고, 본 의원 역시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 임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루 빨리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져 과학기술계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인재들의 진출경로를 다양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 인재 발굴 및 육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아젠다이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육성정책이 마련되면, 미래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우리나라 여성과학자가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자부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이 유리천장을 넘어 국가 핵심인재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성평등의 해법은 젠더교육에 있다



김균미
• 서울신문 대기자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 몇 개를 꼽으라면 젠더와 세대, 노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이 셋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젠더 갈등, 또는 젠더 차이가 가장 첨예한 세대는 20·30대이다. 사회 곳곳의 세대 갈등은 ‘완전히 다른 신세대’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고, 밀레니얼 세대 이해하기가 유행이 됐을 정도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로 20~30대에 포진해 있다.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치솟고 있는 20~30대 청년실업률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젠더 갈등에 주목하자

미투운동 등 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20대 남녀의 차이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남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25%포인트까지 벌어지자 20대 남성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2013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2018년 50%로 2017년보다 9%포인트 높아졌다.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지역 갈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말 전국 만 19~59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투 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조사’(신뢰수준 95%±2.18%p)에 따르면 응답자 70.5%가 미투 운동을 지지했다. 여성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지지도가 80% 안팎인데 비해 20대 남성의 지지 비율은 47.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서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2030 남성 비율 43.6%보다 조금 높아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20대 남성의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때문에 지난 2월 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20대 여성의 새로운 집단이기주의”와 친여성주의 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의 보고서는 그 자체가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과 남성혐오를 원인으로 꼽고 페미니즘 편향적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에 정부 내 모든 부처가 공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단이 다르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세우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4월 중 교육부 등 7개 주요 부처에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전 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 1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기업과 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며, 여성폭력 근절 등 6개 대과제와 22개 중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계획대로 시행될 지 여부다.

공공분야와 민간기업,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차별적 문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바로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젠더교육에서 답을 모색해야 한다.

젠더교육은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

우리가 자주 롤모델로 드는 스웨덴에서는 유치원부터 젠더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우리도 교육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다.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내용이 포함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들을 가려내 수정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지는 따져봐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 및 범부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장기계획도 세운다. 젠더교육을 인권교육, 시민사회 교육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젠더교육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인식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교육과정에 인권 양성평등 내용을 반영하고,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연수를 연 1회 이상 추진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경기 일산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회 ‘아웃박스’나 초등성평등연구회 같은 자발적 연구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시행착오를 두려워말고 교육현장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전국에 3개 학교에 불과한 양성평등 시범학교도 늘려나가야 한다.

교육 효과와 이로 인한 변화는 더디게 나타난다.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정당국과 국회는 말로만 양성평등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젠더교육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예산 지원 등으로 응답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도록 모두가 자기 몫을 해야 한다.👉



가족정책도 여성정치인이 뭉쳐야 힘이 세진다 '방 빼? 못 빼! 국회에서도 여성 억압하나'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제18,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한국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1인 가구, 여성가장주 수 모두 급증하고, 전형의 가족정책 모델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족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전혜숙 위원장에게 그 길을 묻는다.

1 가족의 파괴가 아닌 가족제도의 변화이다

지금 5,60대가 배우고 살아왔던 시대의 가족과는 그 삶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통계상으로도 1인 가구가 29%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순이다. 함께 사는 가족의 규모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가족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이길 원한다. 혼인과 출산도 생애주기에 따라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깨어졌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 변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선택과 결정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가족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다. 다만,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만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2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구상권 발동도 모색해야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계청의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15.9%인데, 한부모 가족은 41.9%나 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들의 요구로 양육비법이 만들어져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국가가 나서서 돕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70% 정도나 되고 있어 한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결국 강자와 약자의 문제이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친부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아 굶을 지경인 처지도 많다. 국가가 먼저 선 지급을 하고 구상권

을 발동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법안 발의를 해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어려웠다.

3 1인 가구 돌봄을 위한 지역 연결망이 필요하다

작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 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도 기존의 독거노인 지원 수준을 넘어서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과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가구를 찾아내 사회적 관계망 구성을 지원하며 1인 가구 대상의 맞춤형 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정책이다. 작년에 입법이 된 만큼 아직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인 가구가 필요할 경우 가족이나 친구 외에 지역 사회에서도 쉽게 돌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 연결망을 고민해야 한다.

4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맞는 가족정책은 무엇인가

전행적인 가족상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지만, 한부모, 조손, 그리고 사실혼 등 현실 가족의 모습은 훨씬 다양하다. 개인의 생애를 놓고 볼 때도 가족형태는 계속 변한다. 저출산·고령사회를 염두에 두면 전형적인 가족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특정한 가족의 유형을 '정상화' 하면 다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비정상화'의 범주로 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주택협동조합처럼 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삶에 대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혈연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친밀함이나 돌봄과 같은 역할을 함께 하는 생활 단위도 항상 존재해 왔고 고령 사회에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삶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에 맞게 입법정책이 나가야 한다.

5 방 빼? 못 빼! 국회에서도 여성 억압하나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오자마자 회의실을 축소 이전하라고 해서 지키느라 복잡했다. 상임위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회의실을 채우기 위하여 여가위보고 옮기라는 거다. 아직도 여성관련 상임위를 대단치 않게 보는 관행이 있으니, 국회의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다니면서 싸움닭이 될 수밖에... 여성의원이 푹푹 뭉쳐 이겨냈다.

그래도 그런 푸대접에 함께 싸우느라 전화위복으로 여야 구분 없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가위는 여야의 다툼 없이 국감도 저녁 9시 전에 끝난다. 내가 일복이 많은지 여가위 오자마자 사무실 문제, 미투운동이 터지고 할 일이 태산같이 쌓이더라. 미투 관련 법안을 20여 개 통과시키는 데 위원들의 단결된 힘이 있어 가능했다. 이 힘으로 앞으로 다른 정책들도 해나갈 것이다.



▲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행렬에 동참한 전혜숙 의원.



당 조직도 아내가 관리 우리집도 여성정치가 힘세!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제17, 19,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인터뷰_김혜성(한국여성정책 사무처장)

김혜성 ♀ 여성의원도 “마누라가 있었으면”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에게는 배우자의 내조가 큰 힘이 된다. 3선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배우자의 내조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시는지?

정성호 국회 의정활동은 아내가 없으면 힘들다. 내가 상임위를 맡고 있다보니 지역구 관리를 대부분 아내가 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산악회만 보더라도 회원이 천 명 정도 되는데 그걸 아예 아내가 도맡아서 한다. 당의 여성 조직도 아내가 관리한다.

김혜성 ♀ 전문직(화가)에 종사하는 부인이 지역활동을 맡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가정내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남편이신지?

정성호 집에 있을 때는 가사 일을 많이 한다. 오랜 자취생활 경험에서 설거지나 칼질도 내가 더 잘한다. 아침에도 주방에 내가 나가야 아내가 일어난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혜성 ♀ 자녀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며, 어떤 아버지이신지?

정성호 스스로 고민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은 알아서 한다. 아이들 학업 성적에 대해 언급해 본 적은 없으나, 단지 공부하고 싶다면 뒷바라지는 하겠다고 했다. 어릴 때 부터 독서광이었던 큰 아이는 프랑스에서 유럽 역사를 공부하는데, 앞으로 경제적 여유와는 거리가 멀지 모르나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행복해 한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늘 가사분담을 강조하면서 교육시킨다.

김혜성 ♀ 현재는 기재위에 계시지만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남녀동수 관련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개인적인 입장은 어떤지?

정성호 국회에서 입법이 쉽진 않겠지만 선언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 20% 정도로 의무화하여 이를 어기면 패널티를 주는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인 것이며, 점차 여성정치인 비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생산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들이 시급하게 나서지 않는다. 프랑스와 일본은 20-30년 전부터 대비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여성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

김혜성 ♀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각기 전문화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성 정치인 숫자도 적고 의정활동 기간도 짧다. 여성의원 전문성을 살려 계속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성호 우선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석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지역구 공천 최소화를 의무화하고, 전문분야 여성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모두 여성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비례대표로서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모두 지역구 공천만 바라보다보니 여야 정쟁에 여성 의원들이 앞장서는 결과가 생겨버리지 않나?

김혜성 ♀ 지역위원장으로 여성정치인이 선출되기 위한 비결이 있는지?

정성호 여성 정치인을 미리 발굴해서 기초와 광역의원으로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공천 과정에 반발이 많아서 아주 복잡했으나, 양주에서도 지역구 여성 기초의원이 지난해 처음 나왔다. 비례의원인 경우 여성이 두 명이 되니 일하기가 한결 나아졌다. 우리 정치풍토에서 여성이 경선과정에서 살아남긴 힘들다. 따라서 여성은 필히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

김혜성 ♀ 지난 해 공공정책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을 하실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정성호 입법 활동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공정함과 공평함이다. 입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동이다. 권리와 의무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적 약자에게 신경 써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이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민생이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한다.

김혜성 ♀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있다면?

정성호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경력 범위를 넓혀 놓았다. 같은 직종에서만 경력이 인정되었는데 유사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김혜성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 정치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신념과 용기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목표를 굳건하게 세우고 사람만나는 것을 겁내지 않아야 한다. 물론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우선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내용보다 겸손하게 듣고 모르면 공부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용기 있고 겸손하면 당선된다. ♀





맛벌이로 버텨준 덕에 국회 입성 '그게 내조 아니겠나'

박성중
제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을)

인터뷰_신 명(한국여성정책 사무총장)

신 명 5월 가정의 달이니 가족 얘기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자. 박의원께서는 어떤 남편이고 아버지인지 자랑을 한다면?

박성중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점수는 50점이나 될까? 과락 수준이다. 사실 지역구 정치인들은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항상 아내나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래도 아내를 귀찮게는 하지 않는다. 딸만 둘이라 여성들 속에서 살고 있다. 3년 정도 일본에서 둘째딸을 데리고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밥도 하고 빨래, 청소도 직접 하다 보니 그 고충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먹는 것도 알아서 차려먹고 옷도 알아서 꺼내 입는다. 아내도 유치원 경영을 하고 있어 보살핌을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한다.

신 명 부인께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구 활동 도움을 받기 어려울 거 같다. 아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불만은 없으신가?

박성중 유치원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일로 바빠서 서로 관여를 안 한다. 선거 때 적극 지원하고, 평소에는 여성의 섬세한 소통이나 다독거림이 필요한 자리에 나서는 정도이다. 공무원 생활을 서울시 유아계장부터 시작했으니 보육사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유아보육사업도 내가 권했다. 구청장 끝나고 6년 정도 백수 생활을 할 때 아내가 버티어 줬으니까 네 번 도전해 국회 들어갈 수 있었다.

신 명 맛벌이 부부를 위한 정치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특별히 최근의 유치원 관련 3법에 전문가의 식견이 있을 것 같다.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성중 유치원 3법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나 싶어 안타깝다.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조금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건 무리가 있다. 사립의 특성을 존중해서 자율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공립보다 특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

다. 그래서 유아 교육의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다. 과도할 경우에만 규제하면 된다.

신 명 여성정치 얘기로 넘어가야겠다. 여성이 선출직에서 여성이 불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박성중 강조하지만 선거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다. 자주 만나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두 번 세 번 접촉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아무래도 여성은 가정도 지켜야 하고 남자들처럼 편하게 밥자리, 술자리를 할 수 없으니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기가 어렵다. 뛰어난 여성 인물이 많은데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밀린다. 여성들이 남자에게 없는 섬세한 감성이 있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창의력도 있어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과 아직은 많이 접촉해야 하고 남성이 부인의 도움을 받듯이 남편이 가정을 맡아줄 정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 명 결국 가정과의 양립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시니 당분간은 제도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남녀동수 관련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은 어떤지?

박성중 남녀동수 즉 여성 50%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0%는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절반을 요구하면 남자들도 모든 분야에서 절반을 담보해줘야 하지 않을까.(하하) 초·중학교 교단은 점점 여성 차지가 되고

있다.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한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명 의정활동을 하실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면 무엇인가? 박성중의원, 하면 뭐다, 이런 게 있다면?

박성중 원래 전공이 도시행정이다. 우리 지자체의 도시행정이 지금 일본방식인데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도시행정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대단지아파트가 수목의 물길을 막고 있어 백년 이백년이 지나면 도심에 사막화현상이 생길 거다. 수백 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한다.

신 명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 정치인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의정활동과 당선되기 위해서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박성중 선거는 공중전과 지상전이 있다. 언론 홍보나 여론 등이 공중전이라면 직접 부딪히는 지상전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와 손잡은 사람을 더 기억한다.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어주는 보병전이 중요하다.

신 명 교과서 같은 말씀만 주신다, 한 가지 팁이라면?

박성중 그건 비밀이다. 농담이고 팁이 어디 있겠나. 결국 발로 뛰어야 한다.



나에게 가족은? 너에겐 **비타민** 이니? 나에게엔 **콩** 이야



침대 이다.
편하고 힘들 때 기대고 누울 수 있기 때문이다(박서준 / 13세)



애증의 노끈 이다.
싫었다 좋았다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니(김도현 / 14세)



체온 이다.
항상 일정한 온도로 나를 감싸주니까. 평소엔 모르지만 잃고 나면 소중함을 알게 된다.(이정운 / 15세)



오피스텔 원룸 이다.
들어가면 답답해서 나가고 싶지만, 밖에 있으면 들어가서 쉬고 싶으니까.(이민지 / 20세)



깨끗한 공기 이다.
당연한 듯 지내다가 문제가 생겨야 소중한 걸 깨닫게 되니까(김예훈 / 22세)



나무 이다.
한 뿌리에서 나고 자랐으므로(이재훈 / 22세)



온기 이다.
찬 바람 같은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므로.(김은혜 / 38세)



사랑의 완성체 이다.
가족을 통해 이 세상에 실존하는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고 훈련하고 완성하기 때문에.(김혜영 / 43세)



다크 초콜릿 이다.
피로할 때 먹으면 힘도 솟아나게 하고 피로도 풀어주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집착하면 이가 썩거나 당뇨도 올 수 있기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변지희 / 43세)



콩 이다.
콩 한 쪽도 나눠야 하고, 니 것과 내 것이 없는 사이(유현민 / 46세)



영감의 원천이며 풀어낼 고통과 축복의 매듭 이다.
선택한 적 없는 최초의 소속으로, 행복과 불행을 배우고 익히며 예술의 힘과 원천이 된다.(김혜주 / 52세)



정박항 이다.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쉴 수 있지만, 머물고 있으면 진짜 항해는 할 수 없게 되니까.(박재희 / 54세)



극성이 하나인 자석 이다.
서로 밀쳐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다.(조경운 / 54세)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동지 이다.
좋은 일에 같이 웃어주고 슬픈 일에 같이 울어주는 진정한 동지(박성연 / 56세)



비타민 이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늘 곁에 있어 못 느끼지만, 비타민처럼 가족이 주는 안도감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신혜선 / 56세)



총체적인 삶의 현장 이다.
삶의 이유이고 에너지원이고, 온전한 나로 성장하게 만드는 공간이다.(이명숙 / 58세)



동심원 이다.
가족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가족과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라 우정과 환대의 사회다.(이광호 / 62세)

사랑의 완성체라는 찬사부터 너무 먹으면 해로운 초콜릿이라는 갈등까지
5월에 풀어놓는 가족에 대한 세대별 존평





맞춤형 돌봄과 여성친화정책을 주목해달라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❶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대전시의 가족 정책과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우리 대전시는 다양한 가족유형과 생애주기에 맞추는 정책을 펴왔다.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큰 방향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정의 주요 목표이다.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매년 700여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사회문화 교육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❷ 대전시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보육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 사회 화두 중 하나가 저출산이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없는 사회분위기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육부담 때문이다. 대전에서도 돌봄

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많다. 돌봄은 무엇보다 수요자 맞춤형이어야 한다. 대전형 아이돌봄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까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 공공형 어린이집 30개도 추가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을 배려하는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급식 운영과 무상 보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보 부모의 보육료 부을 줄이고 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시정의 큰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 어떤 정책을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3개소)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상담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으로 매년 2900여 명의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 외 2007년부터 개최해온 '여성

취·창업 박람회'가 매년 100~150여 개 기업과 6천여 명의 구직 여성이 참석하는 전통취업 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 이 박람회를 통해 매년 300~4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가족친화기관과 기업을 인증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3백 70개 정도 된다. 휴가휴직제도를 확산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친화기업 선정의 성공에 힘입어 여성친화기업 선정도 계획 중에 있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여성편의시설을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올해 시작으로 연말까지 10여개의 기업을 뽑게 된다.

❹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인력을 활용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우리시에서는 대전의 미래를 이끌 여성인재 1천 명을 키워서 여성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대전 미래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인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 우수 인력을 핵심리더로 양성하고 각

분야로 나가게 되면 여성 대표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아카데미 거점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보건대학교에서도 청년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계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전시와 평생교육진흥원, 보건대학교가 대전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나아갈 계획이다.

❺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조연과 한국여성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의사 결정권이 부족하다. 남녀임금 격차와 성차별 등 사회진출의 장벽이 있는 환경에서 남성 정치인에 비해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척박한 여성 정치 현실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여권 신장에 헌신하고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앞장선 여성 정치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의정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역량 향상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특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평등 포용사회로 가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전파해 주시길 기대한다. ♡



◀ 2007년부터 개최해온 대전의 '여성 취·창업 박람회'는 매년 100~150여개 기업과 6천여 명의 구직 여성이 참석하는 전통취업 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❶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해 전라북도의 가족 정책과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교육과 부부, 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교류, 소통공간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지원 연령을 확대했으며, 지역 내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공간 등도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도는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에서 최고등급인 '상위' 등급을 달성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동복지 시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정부 지정 (복지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❷ 가족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영향을 주는 전라북도만의 문화나 정서가 있다면 어떤 점인가?

전북만의 독특한 문화나 정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문화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가족관계와 위라벨(work-life balance)이 있는 가족문화 정립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위라벨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마련했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양육 친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❸ 최근 본청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전라북도의 보육정책이 있다면?

2018년 기준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전국 평균 0.98명 대비 조금 높은 편이나 전년 1.15명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고, 출산율도 매년 하락 추세다. 인구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

는 보육환경의 유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19년 10개소)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110개소→115개소)하는 등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지급, 보조·대체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390여 개의 어린이집 운영 및 지역맞춤형 다함께 돌봄사업 등을 통하여 아이 양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❹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정책전문가로서 전라북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지면서 전라북도는 오랜 낙후와 소외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바람이 대단히 큰 상태다. 전북의 강점을 살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농생명식품산업과 전통문화와 생태자연을 활용한 여행체험1번지 조성을 통해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공항 건립과 세계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수소·전기차 산업 등 혁신적인 신산업을 선점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❺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양육을 위해 일을 쉬고, 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과 '경력단절예방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 중이다. 특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도내 새일센터 9개소 등을 활용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과 여성취업을 연계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산업인 탄소산업과 같은 분야에 여성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훈련분야를 개발, 특성화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❻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빠른 산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아픔이 최근 미투 운동 등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실질적 평등, 일상의 평등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넘어야 할 벽이다. 앞으로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정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족 관련 법제의 미래 유동의 시대, '가족적 삶'에 주목하자



차인순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1948년 제헌 헌법 제20조 혼인에서의 남녀동권이 천명된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족은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여성 차별과 여성의 희생을 발판으로 구축된 가부장적 가족은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실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각인된 '정상가족'으로서 가부장적 이미지는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2005년 민법상 호주제 폐지 이전까지 가족 관련 법제도는 가족 구성권에서부터 재산권과 조세에 이르기까지 부계, 남성, 부권을 다각도로 보장하면서 60여년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실질 평등과 가족 다양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

성불평등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자 가족 관련 법제는 여성과 남성의 일반적인 동권만이 아니라 가족생활의 실질적 평등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2005년 「유아교육법」 그리고 2012년부터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성역할로만 인식되던 양육과 돌봄이 일부 사회적으로 분담되기 시작했다. 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해왔고 지금은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노인 돌봄에 대하여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면서 노인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 다양성도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 가족정책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만이 아니라 조손가족, 만 24세 미만 연령대의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미혼모의 자립 준비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왔다. 또 2015년부터 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조력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해왔고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제고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유동의 시대, 가족의 변화

이처럼 많은 가족관련 법제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지금의 급격한 현실의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족생활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구조가 변동기에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변동이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과 플랫폼에 기반한 깃 경제(Gig economy)의 탄생으로 불규칙하고 편파적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한마디로 유동의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의 구성과 삶의 형태도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있다. 어느새 4인 가족이 아닌 1인 가구가 전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길어진 수명과 글로벌한 정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친인척이나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이 자신의 삶에서 가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공동체 가족도 현실화되면서 가족의 의미와 경계도 유동적이 되고 있다. 동시에 개인주의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적' 삶에 주목하고 지원해야

유동의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무

엇보다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이 공공과 공동체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과거의 양육이 부모만이 아니라 대가족이나 온 마을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명확히 국가의 과업이다. 또 공동체적 돌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온종일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노인·환자·장애인 돌봄 등 지금까지 개발된 사업들이 작은 지역에서도 종합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일·생활 균형제도가 유동의 시대에 대응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고용보험 자격 또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양육자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아이를 키우는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새 모델이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형태가 아닐까 싶다. 소소한 사업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이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일·가정양립기금이든 가족기금이든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외에도 현재 법제에 포섭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적 삶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주거 등 복지와 권리문제에 대하여도 국가가 섬세한 관심으로 포용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 가족정책의 핵심은 누가 가족정책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혼자일 때조차도, 가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이미 와버린 유동의 시대를 대비하는 일차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다문화가족, 아직도 이방인인가?



신숙자
 • 한국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협회 고문
 •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한국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지난 10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어떠한 정책이나 인적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전국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세워졌다. 초기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사업과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은 안정된 초기정착을 이루며 250만 이주민 시대를 열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세계화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가족지원정책 발전의 산실이 되었고, 대학에서는 다수의 다문화관련 논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

다문화정책, 가족지원정책에서 벗어나야

초기에 농촌 총각들이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현상은 소득불평등에서 시작되었다. 소외계층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일부 비판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다. 이런 긍정적 평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빠진 한국사회 인구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출산 대안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결혼이주민의 자녀는 현재 30만에 가깝다.

한국여성 출산율이 1% 미만인데 비해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전체 출산 비율은 5.2%로 높은 비중이다. 그러나 이주여성들도 현재 다문화 소외정책과 차별이 여전한 사회문화와 교육환경에서는 출산이 두렵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임에도 시혜의 차원에 머무는 정책으로 한국사회 주류에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인으로 성장하는 불안함이 크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주민인 부모보다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자녀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주무부서 정책흐름은 통합(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라는 명분을 갖고 법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배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장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특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이제 포괄적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해외동포 1000만명시대! 이제 다문화이주민의 문제는 가족지원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가족지원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은 제3의 인종, 제3의 민족, 제3세력화가 형성되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는 다양한 이주배경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통일 후 북한주민 포용을 위한 공존의 정책까지도 고려한 '포괄적 다문화정책'을 새롭게 추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포괄적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가정을 비롯한 노동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이주배경 인구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주민 개인 간의 관계에서 타지향성, 소통과 공감, 개방성 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사회변화를 지각하고 스스로 혁신적 변화과정을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APEC 정상회담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주요 사회정책 목표'를 제안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목표로 소득불평등 완화 및 공정사회 지향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다양성 증진을 통한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의 뜻은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가 제안하는 '포괄적 다문화정책'과 일맥상통하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법과 제도를 견고히 하고, 관련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정책의 선순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주무부서의 축소된 다문화조직 체계를 '다문화정책실'로 조속히 격상하여야 한다.

자국중심이 강한 일본은 2018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가발전과 미래를 전망하면서 국익을 위한 이주민정책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공존과 평화, 통일 후 사회통합,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다문화 관련 정책의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이주민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이다. 사회통합과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공존의 정책, 포괄적 다문화정책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주배경의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



남녀동수 의회를 앞당겨줄 여성의정 장학사업은



김혜성
• 제18대 국회의원
• 한국여성의정 사무처장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이다. 여성의 사회 경제 지위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하나, 유독 한국의 정치 분야 성평등 지수는 90위에 머물 정도로 여성들의 정치적 권한 역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만큼 현실 정치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고 단단해 보인다.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국가는 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정치교육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하지만, 실상은 여성정치 교육에 대한 재정도 매우 열악하고 대처도 소극적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에서도 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의 불안정성과 남성중심의 정치 환경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이화여대와 중앙대 장학상 15명으로 시작

2019년 한국여성의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정치인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정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와 함께 장학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장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수료까지(총 4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의정 장학사업은 첫 시작으로 2019년 1학기 15명(이화여자대학교 5명, 중앙대학교 10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였고, 2학기에도 제2기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제2기 『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계획) 그 시작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여성의정의 장학사업은 국가기관,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여성정치교육과는 다르게 제도권 내 진입한 기초의회 여성정치인들의 전문성 강화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현장의 여성정치인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여성의정 장학사업에 선정된 여성정치인들은 대다수가 지방의회 재선, 3선까지 한 지방여성의회의원들이다. 이들이 다년간 축적한 지방의회 의정 경험과 더불어 장학사업으로 정치 이론과 정책 실무의 전문성까지 갖추게 된다면,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다 더 확장된 정치의 장에서 여성의 정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여성의정 장학사업은 선거 전후로만 활성화 되는 비정기적 여성정치교육과정이 아닌 법학, 정치학, 행정학, 여성학 등을 아우르는 전문 학위과정이라는 최초의 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냈다. 중앙대학교는 최초 여성국회의원 임영신이 설립한 학교로, 일반대학원 내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의회학과」를 설치하여 성평등 정치 실현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한국의 여성학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는 민주주의 실현을 이끌 리더십 있는 여성정치인들을 배출할 과정으로 정책과학대학원 내 「정치리더십」 과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 교육과정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치교육이 필요한 모든 여성정치인 및 예비여성정치인들의 욕구와 수요를 해결할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셋째, 현직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의정 경험이 있는 전직 여성정치인을 장학생 대상으로 함께 포함하여, 앞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전·

현직 여성정치인의 거버넌스의 장을 교육과정 안에 함께 담은 것이다. 본 과정은 개인의 정치적 기량 향상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를 변화시킬 뜻과 비전을 함께 하는 여성정치인들의 장으로 활용되어 지금까지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 정치의 길을 여는 과정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통로가 될 터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극적으로 급격히 변한 사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세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고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정치인이 되느냐는 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회 변화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의정은 장학사업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넘어, 남녀동수(Gender parity)라는 진정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것이 한국여성의정이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장학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2019년 15명으로 시작한 여성의정 장학생이 150명, 1,500명이 되어 사회를 바꾸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임영신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여성정치인이 배출되기를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학부총장

“중앙대학교는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승당 임영신 박사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라는 상징성이 있는 대학이다. 이러한 전통을 살려 중앙대학교를, 여성정치인을 길러내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설립자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전국 최초로 의회학과를 설립하게 되었다”

류중석 부총장은 여성의정 장학사업이 계기가 되어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가 설립된 만큼 학교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중앙대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내실 있는 커리큘럼을 갖춘 의회학 교육의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의회학을 학제 간 융합 학문으로 접근하고 있다.

“의회학은, 입법기관의 정치학과 함께 현실 생활과 밀착

된 과제들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학제간 융합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도시계획학 등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현장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독특한 학문분야이다.”

학제간 또는 융합 학문의 특성상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방법론을 폭넓게 채용하되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의회학과는 기본적으로 입법활동, 예산 수립 및 집행, 행정활동 감시 등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과목을 배치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류 부총장은 “중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의회학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언론,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며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요구되는 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미래 사회를 이끄는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의회학 박사 1호가 되겠다



홍미영
제17대 국회의원

대학시절부터 인천 빈민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오랜 기간 운영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제17대 국회의원, 부평구청장 재임까지 30년의 정치 생활 동안 정치, 행정 뿐 아니라 법, 도시계획 등의 전문성이 아쉬웠다. 의회학과는 다양하고 필수적인 교과목의 협동과정이 제

공되므로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세계 115위 이하로서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대표성이 커지지 않으면 정책과 사회변화도 더디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의회학과와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다.

그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해오면서 체계적인 분석과 미래 예측성 등이 필요했는데 의회학과 공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어서 가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능한 박사논문도 일찍 준비하여 전국 최초 의회학 박사 1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여성의정에 감사드리며 장학생으로서 자랑스런 의회학과 1기생이 될 것을 다짐한다.

남녀동수의회 실현의 디딤돌을 놓다



장재욱
의회학과 학과장

“의회학과 석사 박사과정의 설립목적은 우수한 실무역량을 갖춘 의정 전문 인력양성이 다.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뛰어난 정치역량을 갖춘 정치인, 입법부 전문직 공무원, 의회학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교육연구기

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재욱 학과장은 정치인의 전문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협동과정으로 만드는 데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한다.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서 사회정책과 젠더, 미디어심리와 젠더 등 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장차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지망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회의 입법보좌관이나 입법부 전문직공무원, 의회학전문가로 진출하는 길도 열려있다.

“대학원 과정이니만큼 학부졸업은 필수지만, 어떤 학부를 전공했든 충분히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

벌써부터 강의실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진다고 전하는 장재욱 학과장은 남녀동수 의회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앙대학교 의회학과가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공직에서 여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사회를 이루는 데도 여성정치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여성의 정의 목표로 하는 남녀동수 의회의 실현을 함께 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

늘 갈증 나던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감사하다



한황숙
칠곡군의회 부의장

세 아이의 엄마,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36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후 전국 유일의 비례대표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의 경험을 쌓았고, 칠곡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3선 의원이자 부의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갈증이 항상 있었다. 의회학을 배우면서 의회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아서 먼 곳에서 다니고자 용기를 내게 되었다.

지방에서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경북에는 여성의원원이 기초, 광역의원 합해도 2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기관에 여성이 진출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의회만큼은 아직 남성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보다 많은 여성의원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싶다.

사실 종일 민원해결에 시달리고 나면 귀가생각이 간절한데도 도움을 주신 분들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편히 쉬 수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수업을 듣기가 쉽지 않지만, 한편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다. 부족한 저를 택하여 꿈에 그리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 여성의정과 중앙대학교에 감사드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가 되도록 힘을 다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융복합의 커리큘럼이 든든한 학문적 배경이 될 것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은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강화라는 한국여성의정의 사업목표에 이화여대는 더 없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화여대는 오래 전부터 여성 정치인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

히 여성의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과학대학원은 그동안 수많은 여성 정치인들을 교육하고 배출했다.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성은 여성학과 정치학의 균형을 맞춰 여성 정치인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여성정치학’, ‘여성정치지도자특강’, ‘한국정치문화와 여성’ 같이 여성리더를 위한 전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정치, 행정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융복합적 커리큘럼을 제공

하고 있는 정책과학대학원의 교과목도 한국여성의정의 프로그램에 든든한 학문적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총장은 정치 영역도 지도력이나 조직력 이외에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성 정치인들은 의회활동, 정치활동, 지방행정, 각종 공공단체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 뿐 아니라 사회 리더로서 정치 철학, 역사, 문화의 기본 소양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문사회 기초 이론의 교육 커리큘럼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 친화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렵게 정치에 입문한 여성들도 중간이나 원로 의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는 만큼, 본 과정이 전문 식견과 역량을 갖춘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 활발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성공사례가 되겠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시의장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한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결혼으로 경력에 단절돼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정책을 만들고 싶어 정치하는 여성이 되었다. 4년간 의정활동에서 여성과 아동, 사회 약자를 위한 조례 발의에 힘써왔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고 부모이자 주부의

1인 다역을 감당하면서 일주일에 이틀 대학원 수업에 나가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많이 힘들지만, 여성정치인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한다. 장학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도록 힘닿는 그 이상까지 감당하겠다. 지방의회에서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맞춤형 시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론을 탄탄하게 갖추고 현실의 필요에 맞는 정책개발에 이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 장학생의 기회를 준 여성의정에 감사드리며, 가족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시민들의 응원을 늘 떠올리면서 묵묵히 열심히 해보겠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성리더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강점을 살려 정책과학대학원에 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커리큘럼으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 실전에 바로 갖다 쓰는 무기를 갈고 닦는 시간



박정수
정책과학대학원장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네트워킹으로 예비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정치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한국여성의정의 활동목표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과 맞닿아 있는 만큼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정치에 특화된 교과목을 추가 개발하고, 의정 경험이 있는 전직 여성 국회의원의 강의를 통해 실제 의정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현장 중심 교과목을 운영하고, 전담 지도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사관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여성 정치인에게 큰 매력이다.

“의정 활동은 정치력은 물론 행정에 대한 지식과 대국

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 다차원적 행위다. 다각도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간학문적 학습이 가능한 융합적 커리큘럼을 꾸준히 확대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현장 중심 교과목과 정치 현장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강의를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정치자원을 배분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과정을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된다. 5학기는 긴 기간이다.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졸업논문을 반드시 쓸 것을 권하는 데서 박 교수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졸업은 논문 대신 추가학점 이수로도 가능하지만, 박 교수는 논문을 쓰는 과정이 큰 경험이므로 가능하면 쓸 것을 권유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연구문제를 증거기반으로 설득하는 일반화 과정을 도출하는 경험이 의정활동에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 지도자로 단련될 좋은 기회로 삼겠다



장상화
고양시의원

대학 때부터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정당에 들어와서도 여성 의제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성정치 대표성을 위한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선으로서 좌충우돌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다른 지방의원님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배우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의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젠더 의제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국민들의 의식지형은 예측 이상으로 빠르게 변한다. 비교적 진보적이고 성평등한 정당 소속이지만 여전히 여성 지도자는 그 기반이 많이 취약하며, 의제에 대한 정책 기반도 미약하다. 잘 단련된 여성 지도자로 시군구, 광역단위, 국가를 망라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

‘깊은 물에 큰 배 뜬다’는 말이 있듯이 많이 배우고 고민하면 저의 정견도 깊어지리라 기대한다. 열심히 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2019년

한국마사회 장학관 개관



“ 한국마사회가 농촌대학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부한 용산 장외발매소가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마사회 장학관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건물 전체를 공익적으로 환원한 인프라형 사회공헌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 입니다. 앞으로 한국마사회 장학관이 농촌대학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한국마사회

제2기 『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여성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개 대학교와 공동으로 『여성의정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장학생 자격

① 전·현직 지방의회 여성의원 ② 전직 여성 지방단체장 ③ 전직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해당 대학 모집분야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2.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기간 : 4학기
- 지급액 : 해당 대학 등록금의 2/3(대학 1/3, 한국여성의정 1/3)

3. 대학별 과정 및 일정

| 구분 | 이화여자대학교 | 중앙대학교 | 비고 | |
|----------|----------------------------|----------------|---------------------|----------------|
| 모집분야 |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전공(정치리더십 분야) |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 | |
| 과정 | 석사과정 | 석사 및 박사과정 | | |
| 장학생 모집인원 | 5명 | 10명 | | |
| 일정 | 원서접수 | 2019.4.15.-30. | 5.3.-14. 대학 | |
| | 학교 시험 | 2019.5.17. | 6.8. 대학 | |
| | 합격자 발표 | 2019.6.7. | 6.21. 대학 | |
| | 장학생 선발 | 심사 | 2019.6.10.-14. 중 1일 | 6.24.-28. 중 1일 |
| | | 발표 | 6.17. 이내 | 7.1. 이내 |
| | | | 여성의정 장학생선정위원회 | |

한반도 평화시대 여성정치의 자리



김성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의 시작을 알린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에 나는 중국에서 만난 한 북한여성을 떠올렸다. 지금 이 몽클한 장면을 그녀도 보고 있을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녀도 나처럼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있을까?

남북이 화합하면 그녀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녀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그녀는 중국 연길에서 태어났다. 해방되기 몇 해 전, 아들 셋 집안에 막내딸로 태어나 연변대학교에서 조선어를 전공했고, 대학시절 만난 조선청년과 결혼해 가족을 꾸렸다. 1960년대 후반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에 북조선에서는 “조국으로 돌아오라”며 조선족들의 이주를 장려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남편은 북조선에 돌아가 “조국 건설”에 힘쓰겠다고 하며, 온 가족을 이끌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그녀 또한 문화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가난하게 차별받으며 살기보다는 북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 길을 따라나섰다.

북한에서 그녀의 삶은 꽤나 괜찮았다. 북한 정부는 집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했으며, 곧 당원 신분도 얻을 수 있었다. 자녀 교육 시키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것 같던 그녀의 삶은 갑작스레 닥친 고난의 행군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다. 먹을 것이 없어 쇠약해진 남편이 병으로 죽고, 장성하여 결혼한 자녀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험겨워졌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다. 중국 쪽에 친척이 있는 북한여성의 경우 사사여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늙어버린 몸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일을 한다. 그녀가 받는 임금은 고작 중국 돈으로 2000원, 우리 돈으로 40여만 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송금한다. 고된 노동이 점점 더 힘들지만 자신의 송금이 자녀들의 목숨 줄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는 터라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돈을 보내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겨울이었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이 있는지 고작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극대화된 한반도 긴장 탓인지 그녀는 갑작스레 남북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다.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해서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더 안 좋아 질것이라는 나의 답변에 그녀는 한숨을 깊게 쉰다. “수령님이 살아 있을 때부터 워낙 미제가 못살게 굴어서. 그래서 핵을 만든 건데. 이제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북에 사는 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빠질까, 북한 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중국처럼 개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인다. “남북이 만나면 나 사는 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녀는 남북이 화합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북한이 이렇게 배고플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맞다. 남북이 화해만 한다면 그녀가 불법적 신분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 필요도 없으리라. 북한의 경제가 회복된다면 그녀는 이제 자녀들 곁으로 돌아가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북의 첨예한 대립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냉전구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삶 또한 분단체제와 열강 사이의 냉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화를 향한 한반도 대전환 시기, 그녀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처럼 그녀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져 있을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녀는 중국에서 여전히 불안 속에서 노심초사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북한의 자녀들은 그녀의 송금에 기대 겨우 생활을 이어간다. 핵개발 이후의 대북제재로 북한 인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일상에서 변화를 찾지 못한 채 쉽다. 그만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거대 담론이 한반도의 시민들의 삶까지는 바뀌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좀 더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1년간 수많은 약속이 남북 사이에 있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동포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남녘의 선한 시민들의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라는 명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핵, 평화체제, 한미동맹 등

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수많은 인민과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중국의 북한 여성들의 비참한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 담론에 여성정치의 아젠다와 실천전략 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성정치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한반도 평화 국면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북한측의 여성인사와의 몇 번의 교류가 여성정치의 자리는 아닐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가, 안보, 핵 등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여성정치만의 아젠다와 실천전략을 구축해야만 한다. 잠깐 방심하면 한반도 평화의 내용이 결코 여성에게는 평화롭지 않게 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정치는 한반도 여성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단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철저히 삭제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도 분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녘의 여성 일반,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 불법노동자로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평화의 시대에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남녘의 여성이 나서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여성정치는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 중심의 거대 담론에 틈새를 만들어 내야 한다. 척박한 삶의 조건에서 신음하는 북한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듬고, 자그마한 현실적 도움이라도 건네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여성정치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라는 국면에서 여성정치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여성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그 자명한 질문으로 말이다. 여성정치만이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바로 분단 속 한반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일임에 분명하다. ♡

체육계에 할당제를 다시 외치는 이유



유승희
 • 제17, 19,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 한국여성의정 이사

올해 1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미투를 보면서 10년 전에 체육계 성폭력을 제대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10년 전에 체육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년 세월에 달라진 건 없다

2007년 A은행 여자프로농구감독이 여자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10년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특히 여성선수들에게 기량 향상을 이유로 가하는 성폭력을 포함한 상습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문체부도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여성지도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난색을 표명, 할당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성폭력 파문으로 물러난 A은행 감독 후임자 공모에 박찬숙 전 국가대표 농구감독이 응모해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탈락했다. 이때 박 감독이 A은행 감독 선임과정에서 고용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어떤 개선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박찬숙 감독은 한국 여자 농구의 '상징'같은 존재였고, 여성선수가 남성 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여성감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프로 농구팀의 유리천장은 절대 깨지지 않는 철벽이었다.

여성지도자 할당제가 답이다

10년 후 재발한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여성지도자 할당제가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 등 여성체육계는 입법공청회에서 한 목소리로 체육계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감독과 코치를 포함한 체육지도자는 총 1만9,965명에 달했다. 이 중 여성지도자는 3,500명으로 전체 지도자의

17.9%에 불과하다. 선수 총 인원 중 여성선수 비율 23%에 비해 여성지도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역시 매우 낮다.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으로 13.7%에 불과하다. 시·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으로 11.4% 수준이다.

여성지도자의 인력풀을 고려할 때 여성지도자 30% 할당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0% 이상의 여성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 적극적 고용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지도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여성지도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 실기 테스트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투자를 해서 여성지도자 인력 풀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지도자 여성 30% 할당을 위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체육회 여성임원 30% 할당부터 시작하자

여성지도자와 달리 체육회 여성임원은 30%를 채우고도 남을 인력풀을 갖고 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20%를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도 전체 임원 24명 중 여성이 7명(29%)으로 여성임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임원 30% 의무화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30% 의무화는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선수 인권보호 등 체육계가 성평등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여성할당제가 남성 지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선수에게 가해졌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한다면 ‘여성 지도자 할당제’는 체육계를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입법공청회

임정 100년에 찾아보는 임시의정원 여성의원 이야기



정운현
• 국무총리비서실장
• (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의 활동상과 임정을 이끈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구성됐는데, 3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제를 채택했다.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법기관인 법원 등 3부로 구성됐다. 임시정부가 현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라면 임시의정원은 현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29인의 민족지사들이 출범시켰다. 임시의정원의 명칭은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조소앙의 동의로 결정되었다. 초대 의장에는 이동녕(李東寧) 선생을 부의장에는 손정도(孫貞道) 목사를 선출하였으며,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임시의정원 57명 의원 중 여성의원 7명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각 지방의 대표자들로 조직되었는데,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 남녀’로 정하였다. 독립운동가의 경우 ‘조국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광복사업을 실천하는 자’로 하였다. 의원 수는 각 지방의 인구비율에 따라 정했는데, 30만 명에 의원 1인을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中嶺, 중국령) 교민 6인, 아령(俄鈴, 러시아령) 교민 6인, 미령(美嶺, 미국령) 교민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은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3년에 연임도 가능하였다. ‘의정원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률안 및 예·결산 의결, 임시대통령 선거 및 탄핵심판, 국무원 및 외국대사 임명 동의 등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하였다. 임시의정원은 당시 입법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 가운데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성의원도 몇 분 있었다. 김마리아(金瑪利亞, 1892-1944), 양한나(梁漢拿, 1893-1976), 최혜순(崔惠淳, 1900-1974), 방순희(方順熙, 1904-1979), 김효숙(金孝淑, 1915-2003), 신정완(申貞婉, 1917-2001), 지경희(池璟禧, 1910-?) 등 총 7명이다.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은 1922년 황해도 의원으로 선출된 김마리아(건국

훈장 독립장)다. 김마리아는 일본유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 독립선언’에도 참여하였으며, 귀국하여 3·1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애국부인회를 결성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일로 일경에 체포돼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이후 미국 유학을 다녀와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여 앞두고 1944년 3월 53세로 타계했다.

두 번째 여성 의원은 1923년 경상도 의원으로 선임된 양한나(미서훈). 그는 민족학교로 불린 부산진 일신여학교 1회 졸업생 출신으로, 3·1운동 후 중국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임시의정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귀국 후에는 YMCA 총무 일을 보았으며, 해방 후에는 우익계열의 여성단체인 한인애국부인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미군정 시절에는 수도관구경찰청(현 서울경찰청) 여자경찰서 초대서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전남도립병원 간호사 출신의 최혜순(건국훈장 애국장)은 1931년 11월 24일 남편과 함께 전라도 의원으로 선출돼 1933년 2월까지 활동하였다. 남편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김철(金澈, 건국훈장 독립장). 이후 최혜순은 상하이에서 조산병원을 경영하며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

1939년에 함경남도 의원으로 선출된 방순희(건국훈장 독립장)는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와 인연을 맺고 활동하였다. 임기를 마친 후 194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생계부 생활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부주석, 이시정부 선전과 과원, 한국독립장 부인부장 등을 지냈다. 처 남편 현익철(玄益哲, 건국훈장 독립장)은 소위 ‘남목청 사건’으로 사망하자 이후 동지인 김관오(金冠五, 건국훈장 독립장)와 결혼하였다. 김관오는 육

군강무당학교 출신으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고급부관과 임시의정원 강원도 의원을 지냈다.

1941년에 임시의정원 강원도 의원에 선출된 김효숙은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봉준(金朋濬,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딸이다. 3·1운동 후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1938년 한국광복전선청년공작대에 가입하여 대일 선무공작에 참가하였으며, 이듬해 한국독립당에 가입한 후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또 1944년 민족혁명당 감찰위원이 되었으며, 그 해 10월에는 광복군 제2지대에 중군하여 대일 심리전 활동을 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신정완(건국훈장 애국장)은 해공 신익희(申翼熙,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딸로 1917년 경기도 광주 태생이다. 3·1운동 후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1937년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43년 10월 임시의정원 전라도 의원으로 선출돼 해방 때까지 활동하였다. 오빠 신하균(申河均, 건국훈장 애국장)도 광복군에서 정위로 근무하였다.

학계 자료조사와 심층연구 작업 기대

지경희(미서훈)는 1910년 함경도에서 태어났다. 민족혁명당에서 활동하다가 1942년 임시의정원 함경도 의원으로 선출됐다. 그 밖에 자세한 행적이나 사망연도, 묘소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남성의원들에 비해 여성의원들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활동기간도 매우 짧아서 이들에 대한 관련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장차 임시의정원 여성의원들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심층적인 연구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계의 분발을 기대한다. ♡

비리 사립유치원 해결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



최순영
• 제17대 국회의원
•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유치원 3법’이 되기까지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의원만 돋보였다. 2018년 10월 5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감사 받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확인하려는 학부모들의 접속으로 마비될 정도였다. 이 여세를 몰아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박용진 3법’으로 한꺼번에 세 개의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한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까방권’을 받았다.

‘박용진 3법’은 2018년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은근히 또는 대놓고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치원 3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법안 내용도 수정되어 자한당이 불참한 가운데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되었으니 ‘유치원 3법’은 2019년 내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3법’의 내용을 알까?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알고 있을까?

사립유치원 비리는 아동폭력이다

수박 1통으로 100명이 먹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유치원에 공급되는 과일의 양이 많아졌다는 기사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다. 교직원 포함 284명의 영양삼계탕에 닭 4kg(4마리 정도), 수삼 5뿌리, 대추 300g(약 한주먹)이다. 닭 한 마리로는 71명이, 수삼 1뿌리로 57명이 먹는다. 이것도 어른인 교직원과 나눠먹어야 한다. ‘명품백’에 가려진 원아들의 처참한 현실이다. 교육기관의 이름으로 ‘아동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국회의 무책임 때문이다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국고가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이다. 이후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2012~2018년까지 7

년 간 사립유치원에 10조 2,41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서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나랏돈이 목적에 맞게 똑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국회도 이것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이 휴원, 개학연기, 폐원으로 원아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것은 자신들의 말이라면 대부분 들어주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국회가 매듭지어야 한다. 법을 바꿔야만 한다.

현실을 바꾸는 법이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3법’에서 몇 가지가 빠지거나 변경되었다. 대표적으로 설립자 제한 조건은 삭제되었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에듀파인으로 축소되었다. 설립자 제한 조건이 없는 틈을 타서 경기도내에 감사 결과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역시 경기도 내에 또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법적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는지만 투명하게 할 뿐 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등의 회계 집행이 정당한지는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 국회는 답해야 한다.

국민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초고령화 사회로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현재의 국민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길이다. 아이를 안전하고 튼튼하고 푹푹하게 키울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당리당락을 떠나 유치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명령이다.

2020년, 국민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선출직은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표가 많을까 사립유치원장들의 표가 많을까. 그동안은 사립유치원장들의 표의 의식했을 것이다. 그들의 압력과 로비만 보였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한유총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모두 실패했다. 201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휴원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2019년 3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도 실패했다. 국민의 95% 이상이 사립유치원의 집단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한유총 소속이냐”고 묻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말을 듣고 투표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표는 사립유치원장들 표의 몇 백 배가 넘는다. 원아 수가 200명이면 학부모의 표는 최소한 400명이다. 400:1이다.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표가 사라진다. 대한민국은 절대 권력을 바꾼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다. 2020년, 국민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이 살아날 길이고 존재 이유다. 🇰🇷

여성 국회의원 패널조사가 말해주는 것들



민병주
• 제19대 국회의원
• 한국여성의정 이사

한국여성의정의 활동과 기관의 비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슬로건 중 하나가 ‘여성 국회의원 51명을 51%로’이다. 51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2016년 20대 총선 결과로 총 300 의원 중 여성의원이 51명 선출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국회의원에서 여성의원 비중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국제의원연맹(IPU)의 국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가 2019년 현재 121위에 해당될 만큼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세계적 흐름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한국의 순위는 2018년보다 오히려 다섯 계단 하락했다.

왜 한국에서 여성 정치적 대표성 및 정치적 권한 역량은 다른 영역에 비해 유독 제자리걸음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여성의정은 한국 여성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 해결하기 위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조사에는 2018년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144명(전직 94명, 현직 50명) 중 104명(전직 70명, 현직 34명)이 응답했다. 2014년과 2016년에 실시된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본설계 및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정치활동을 하게 된 경로 및 그 후 변화를 조사하였다.

여성 정치인의 첫 번째 역량은 사회경력과 전문성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의 패널조사 결과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있다. 첫째,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두 ‘사회 경력’과 ‘전문성’을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때문에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두 정치적 전문성과 정책·공약 개발 역량 등의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치적 권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여성의정이 2018년도부터 펼치고 있는 장학사업에 많은 전·현직 여성정치인들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도 이와 연결된 맥락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대 현역의원의 응답에 따르면 여성 후보라는 점이 공천 및 선거운동 과

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에 따른 가시적인 활동 성과와 더불어 유권자 및 정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 후보라는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넘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성 정치 참여가 늘어난 큰 성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직접적으로 여성의 정치 진출을 강제하는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큰 주축이 되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한 현실에서,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넘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의회에서 50%를 구성한 남녀동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정책 및 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히 미래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정치학 전공자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대의정치 및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의식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의 진로로 정치인을 설정하는 비율이 설문자의 30~4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지방정치 참여 의향이 17.1%로서 남학생의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정치인=남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열망과 정치적 야망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 여성들이 정치 영역으

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구축하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여성의정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기대하며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입문 과정, 선거 및 의원활동, 선거패배 및 정치 경력 유지와 재진입 경로 등을 담은 이번 패널조사는 사실, 그 시도만으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여성정치인 비중은 여전히 소수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여전히 미비한 환경 속에서 여성 정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51명을 51%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 영역에 진입하고 싶어 해야 하며, 진입을 위한 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패널조사 또한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적절한 지원책을 찾기 위한 인큐베이터 과정 중 하나이다. 본 조사를 통해 구축된 기초데이터가 자료를 넘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치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회성희롱 고충상담실 <공감>을 찾아가다!



황현영
• 한국여성정책 객원기자
• (전)한겨레21 전문위원

국회성희롱 고충상담실 <공감>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의원회관 신관건물 5층 복도 끝 방에 자리잡은 상담실은 내방객의 조심스런 발길 만큼이나 뽀뽀 숨어 있었다. 524호 앞에 상담실을 알리는 배너가 다소 곳이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갈하고 편안한 내부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4단 책꽂이에 심리상담에 필요한 여러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 '인생상담',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등 책 제목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창가에 배치된 상담실에는 깔끔한 패브릭 소파 의자가 놓여있었다. 회관 뒤뜰에 만발한 벚꽃이 한 눈에 들어왔다. 내방객에게 편안함을 주려는 공간배치가 느껴졌다.

국회성희롱 고충상담실 <공감>은 지난해 11월 16일 문을 열었다. 국회사무처에는 5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국회 사무처 인사과 직원 한 명이 성희롱 고충 상담업무를 겸직하고 있었을 뿐, 별도의 상담실이 운용되지 못했다. 늦게나마 상근직원을 두고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감>이 개설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4월 3일 현재까지 <공감>에서 총 109회의 상담이 이뤄졌다. 대면상담 94회, 심리평가 11회, 전화상담 4회, 접수된 상담 3건 등이다. 개소 이래 하루 평균 1.2회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직장 스트레스, 가족 불화등 다양한 상담 가능

아직까지 <공감>을 이용하는 국회 직원은 많지 않다. 특히 의원회관 보좌진들의 업무 강도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근무시간 내에 <공감>을 찾아가 상담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공감>에서는 상담실 문턱을 낮추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희롱 관련 고충 상담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 가족 간의 불화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얼마 전 국회 전자 게시판에 <공감> 배너를 오픈한 기념으로 심리검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봄인데 나만 우울하다'고 느끼시는 분, '내 성격,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까지 언제든지 <공감>에 노크하면 예약제로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속병'을 앓는 분들이 많았다. 혼자서 끙끙대며 속앓이를 하다가 병이 생겼던 것이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상사의 갑질 등으로 속앓이를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속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통'을 꼽는다. 마음 속에 담아둔 무거운 짐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치유가 이뤄진다고 한다. <공감> 상담실이 뽀뽀 닫힌 국회 직원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국회인권센터 설치의 디딤돌

지난해 4월 유승희 국회윤리특위위원장이 국회 사상 처음으로 '미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 4명 중 3명은 인턴이거나 9급일 때 성희롱을 당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다수는 하급직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상급직 남성이었다.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8명이나 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 신고는 곧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국회를 '미투 사각지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무렵 국회사무처는 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다. 인사과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인권센터를 설립하면, 여기서 피해자 상담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까지 가질 수 있어 국회 내 성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인권센터 설치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직제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규칙 개

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다. 국회성희롱 고충상담실 <공감>이 소통 창구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공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그동안 굳게 닫혔던 직원들의 입은 열릴 것이고, 국회인권센터 설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인 언니는 낯설어’

나현선(나경원 국회의원 여동생)

정치인 언니는 자라면서 보았던 나의 언니와 다르게 보인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언니의 모습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눈물 많고 다정한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네 자매 중 맏이인 언니는 늘 동생들을 귀여워해 주었다. 학교를 다녀오면 뽀뽀해달라고 졸랐고, 동생들과 함께 놀아주기를 좋아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맏이로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웠고 동생들을 잘 보살폈다. 또 자매들 간에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도 언니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해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보다 7살 위인 언니는 늘 바쁘게 보였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잠시 대학생살을 즐기거나 싶더니 고시공부를 위해 고3 수험생들처럼 거의 매일 아침 일찍 고시원에 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허약한 몸 때문에 밤 늦게 집에 돌아오면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시험기간에 두세 시까지 언니를 붙잡고 모르는 것을 묻곤 했는데 언니는 늘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든 과목에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이 가르쳐 주는 언니가 나는 매우 신기했다.

모범생 언니가 투사 정치인으로 변해

그런 언니가 판사를 거쳐 지금은 정치인이 되었지만 정치인 언니의 모습은 아직까지 낯설기만 하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언니가 정치를 한다니 주변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아마 정치를 하지 않고 판사의 길을 계속 갔으면 대법관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언니가 정치인이 된 후 서울시장 선거 후보가 되었을 때에는 어처구니없는 거짓 뉴스, 루머 등으로 억울함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심지어는 나의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 사이에도 언니에 대한 가짜 뉴스와 소문이 떠돌아 다녔다. 그 때 언니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많이 상심하고 힘들었다. 그러나 정치인은 사생활이 없을 뿐더러 설령 진실이 왜곡되어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행동 하나 하나가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다 보니 언니의 진정성이 오해를 일으킬 때도 있어 동생으로 그런 모습을 보자면 정말 속상하다.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들이 그런 속사정을 어찌 알겠는가. 요즘 국회에서 투사처럼 비

취지는 모습을 볼 때도 안쓰럽다. 아이들을 키워주고 늘 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요즘 같은 때 큰 힘이 되어주셨을 텐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길 응원해

언니가 정치인이 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로서 남편의 얘기를 잘 들어 주고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는 언니를 기억한다. 또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잠을 줄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정치인의 길은 고단하고 외로워 보인다. 아직도 언니가 정치인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서툰 손놀림으로 실수를 많이 했던 언니가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어색하기만 하다. 언니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법조인으로 남아서 최초의 여성대법원장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그럼에도 나는 언니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언니가 정치인이 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나는 어릴 때 언니가 다정하게 대해 주었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언니의 작지만 진실한 목소리가 우리나라를 조금이나마 바르고 밝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나경원 국회의원

- 4선, 제17~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국여성정의공당 대표
- (前)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前)서울행정, 인천·부산지방 법원 판사

무리지어 아름다운 풀꽃 백리향

홀로 보아도 예쁘고 여럿으로 보면 더 예쁘다
비 그치고 자갈마당에 짙은 향이 아찔한데
무심한 발끝이라도 닿아 고운 모습 어지럽힐까
다소곳이 고개 숙여 님 보듯 널 본다

사진 / 박성연 작가



공감 능력으로 빛나는 건축가 여성의 벽을 넘어 공공건축에서 길을 찾다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우리 세대의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고 자랐다. 대학에서 주생활을 전공하게 되었지만 큰 흥미를 못 느꼈고 미래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많은 방향을 했다. 그 때 만난 책이, 이효재 선생님의 '여성 해방의 이론과 현실' 이었다. 정말 나만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싶었는데, 책을 읽으니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다. 건축학과 수업을 들을수록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어렵게 건축학과에 학사편입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건축을 공부하려니 마음에 부담이 컸지만 그런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여성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주위의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유학의 길 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특히 오빠들의 반대가 심했다. 아버지만 승낙을 해주셨다. 결국은 오래전부터 알던 뜻이 맞는 선배와 결혼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난 무엇을 위해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나

건축설계는 새로운 공간과 건축을 만드는 일이라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결과물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려면 야근도 하게 되고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된다. 보수는 적은데 일은 많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축 설계가 3D 업종이라고 기피한다고 한다. 나도 젊은 시절엔 너무 힘들었다. 무엇보다 일감을 얻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

려웠다. 여성은 사회 관계망이 남성보다 좁기 때문에 관계가 분명했다. 주택 설계는 몰라도 기업의 사옥 같은 큰 건물의 건축설계를 여성건축가에게 맡기는 일은 아예 없었다. 민간영역에서 기업의 일에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건축 현상설계 뿐이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빛은 쌓이고, 영원히 당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빛으로 길에 나앉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건축을 계속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길을 잃을 때도 많았는데, '난 무엇을 위해 이토록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나'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건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람이 큰 직업이라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라도 잘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청소하는 분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설계하는 공간이 힘든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더불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

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건축을 하는 보람이라는 것!

이 깨달음이 큰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안도감이랄까.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곳곳이 버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건축을 보다 세심한 눈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되었고, 우리 사회와 도시가 가야할 방향까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공공건축물 현상설계라는 한 우물을 판 덕분에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공공도서관, 체육관, 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작품으로 남기게 되었다. 대단히 독보적인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용자들이 팬찮은 건물이라고 인정하는 점에 자부하고 있다.

건축은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일, 한옥까지

한옥을 설계하게 된 것도 그런 과정 속에서였다. 한옥은 우리의 독특한 건축 양식인데 우리 건축가들이 왜 그것을 외면하는가에 의문을 품었다. 그것을 과거의 유물

▼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보는 이와 지나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만든 김용미 건축가의 작품, 한옥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이라 치부하고 서양식 건축물만 쫓아간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주변에 한옥 문화재가 있는 장소이거나 역사적인 장소인 경우에는 남산국악공연장, 해남윤선도전시관처럼 주변 맥락과 어울리는 한옥으로 설계하게 되었다. 한옥을 설계하면서 현대적 시공법만 적용하면 한옥이 얼마든지 현대 건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칸으로 이루어진 한옥 특성상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산업화된 공법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길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건축가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 대학에서는 5년제 건축 설계를 전공하는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도 여직원 숫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 건축을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과 행태를 읽어 낼 수 있는 공감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 트렌드는 젊은 여성이 주도한다고 하는 만큼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이제 건물을 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 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넓어진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④ 건축의 기본 소양은

어떤 일이든 추진하는 힘은 그 일에 대한 열정인데, 그 열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된다, 그 신념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나만을 위한 일을 할 때는 대충해도 되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는 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 신념은 내가 하는 일이 이웃을 넘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할 때, 즉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할 때 더 강해진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사회가 필요한 일에서 찾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혹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면, 우선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려면 늘 이웃과 우리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 사회조력문화관 전시 기능과 레스토랑, 전망 기능을 별도로 구성하여 그 사이에 바다로 열린 마당공간을 만들었다.

우리 동네 띄우는 비장의 카드
비장의 머니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는 우리 동네를 생각한 착한 소비니까~ 우리 동네 경제를 키웁니다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 구입 시 6% 할인 혜택 ■ 30% 소득공제 혜택 ■ 카드형/모바일형/종이형으로 쉽고 편리한 사용

경기지역화폐 검색

외교와 문예분야에서 지도력 보인 시인 국회의원 모윤숙



정현주

- (사)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시로 대중의 감정에 호소

6, 70년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와 <렌의 애가>를 모르는 이가 없을 듯하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 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쳤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오늘날 6.25전쟁을 몸소 겪지 않은 이들이 보더라도 눈물을 짓게 한다. 글의 힘이다. <렌의 애가>는 어떠한가? 이 시에 나오는 '시몬이 누구였을까? 많은 이들이 이광수라고 추측한다.

시몬!

당신의 애무를 원하기보다 당신의 냉담을 동경해야 할 저입니다. 용서하세요.
— 그러나 당신의 빛난 혼의 광채를 벗어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려 준 인생의 길, 진리, 평화에 대한 높은 대화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렌의 애가>는 1936년 4월 15일 조지훈 시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일월서방에서 초판이 간행되자 닷새 만에 매진되었고, 오늘날까지 90판 이상을 거듭할 정도로 인기 있

는 작품이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아내 있는 남자인 시몬, 축복이면서도 형벌인 그 사랑을 당당하게 육체가 아닌 영혼의 사랑을 다짐하는 렌의 노래는 힘차고 당당해서 좌절의 노래가 아니다. 전통의 억압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희구했던 개화기의 한 여성이 사랑을 통해 자각을 얻는 승리의 노래로 평가받는다. 이 두 시(詩)는 모두 모윤숙의 솔직한 목소리가 독자들에게 주는 호소력이 있다.

광복 후 정치 현장에 참여

1945년 광복이 되자, 그 기쁨과 조국 분단의 아픔을 시로 지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민족과 함께 나눴다. 광복군이 돌아 올 때 <우리 군대>, 백범 김구가 돌아오던 날의 감회를 읊은 <출발>, 3·8선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자 <3.8선의 밤>이라는 시를 지었다. 조국의 혼란의 역사를 목격하고 이를 시로 표현했다. 문학이 조국의 역사를 위해 쓰인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입국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하자 그도 박순천 등과 함께 여성대표의 한 사람으로 정치현장에 뛰어들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서서 그 자신이 역사가 되었다.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여 수많은 국가대표들과 접촉하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 1948년 대한민국 승인을 얻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장면. 앞줄 왼쪽부터 모윤숙, 조병옥, 장면, 김활란, 위 왼쪽부터 정일형, 김우평, 장기영, 김진구

단명한 국회의원 활동, 아쉬움 남겨

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애국시를 지었다. <논개>, <황룡사 구층탑>, <성삼문> 등 장편서사시를 계속 썼다. 문학 활동 외에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전국구), 국제펜클

럽 회원, 국내여성단체 활동가 등 중형무진 활동했다. 그의 국회의원 활동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 제정으로 1년 3개월 만에 끝났다. 문교공보위원회에 배정되어 1972년 국제국회의원연맹 파리대회에서 공해문제에 대해 연설을 했고, 11월에 유네스코 파리대회에도 참석했다. 1971년 12월 20일에 개최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안에 대한 첫 번째 질의자로 학교 내 예술단체 설립이나 예총같은 기존의 단체에 대한 지원, 해외예술인 초청 등에 대해 질의했고, 문교부 예산심의에서 학교행정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교실의 확충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주문했다. 그 자신의 국회의원생활에 대해서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나. 무료로 들어갔다가 무료로 나왔는데. 그래도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한번 하면 왜 그걸 자꾸 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 할 수는 있었다” 는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당한 한국 여성의 삶 몸소 보여

모윤숙의 마지막 업적은 애국 서사시를 썼다는 점이다. <성삼문>을 쓰다가 뇌일혈로 쓰러져 중단되었다. 성삼문과 신숙주의 아내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조선여인의 삶을 표현하려 했다. 결국 마치는 못했지만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국과 민족의 사랑을 문학(시)으로 승화시켰다.

국회의원 모윤숙은 시인이요 문학인이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한국의 여성 인물이었다. <렌의 애가>(1959) 서문에서 그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였다. 그보다도 여성이기 때문에 미(美)와 꿈에 대한 희구가 강했다. 그러나 한국에 태어난 여자였기 때문에 나의 고민 속에 몸부림치는 꿈과 이상을 붙들고 항의치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꿈과 이상 속에 수수께끼처럼 숨어 있는 인생의 행복을 더듬어 노를 저어” 여성으로서 감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시대를 살아낸 한국 여성이었다. 이러한 당당함으로 그의 국회의원 활동이 더 이어졌다면 국내외에서 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

2018년 과학 기술분야 유공자 지정

김모임 (제11대 국회의원)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모임 전 의원은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생명과학분야에서 '2018년 과학기술분야 기술유공자' 지정되었다. 노환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김 전의원은 간호 전문직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한 최초 국회의원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립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사회 활동촉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하였다. 국회 퇴임 후 전문분야인 국제간호협의회 회장과 세계보건기구 간호협력센터 글로벌네트워크 Global Network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 간호대학 총장까지 그의 활동은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김모임 전 의원은 흐뭇한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 세계적인 간호학 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2014년에는 모교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26억을 기부했다.

2015년에는 유한양행의 '유일한상' 상금 1억 원과 자신의 재산을 합해서 국제간호협회에 기부하여 세계 140여국의 간호사 중 인류건강에 기여한 사람을 가려 2019년부터 수상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다시 농민으로 돌아가 〈언니네 텃밭〉 운영

현애자 (제17대 국회의원)



현애자 의원(제17대, 민주노동당)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인 〈언니네텃밭〉에서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3년 전부터는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사업을 주도하여 오고 있다.

〈언니네 텃밭〉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기치로 2009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다. 여성농민이 ‘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생산과 가공, 유통의 주도성을 되찾아 지역 식량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식량주권 실현운동’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으려 하는 소비자와 함께, 제철 꾸러미 방식과 ‘장터’라는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현재 전국 각 시군과 읍·면 단위에 20여 개의 소농여성농민생산자 공동체를 결성하여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궈나가고 있다.

현애자 전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 여성농민 대표로서의 활동을 넘어 사회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사회복지영역에서 진보적인 제도와 정책 실현에 주력했다. 특히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였다.

의회를 떠나서 더 활동적인 엄마정치 펼쳐

장하나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의원은 청년대표를 국회에 진출하여 임기 중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엄마로서 겪는 사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2017년 3월부터 한겨레 토요일에 〈장하나의 엄마정치〉를 18회 연재했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다뤘고, 2018년 5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한 유아교육 정상화를 이끌었다.

지금도 스쿨 미투 무료법률지원,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진상규명, 혐오차별미디어 감시캠페인 ‘핑크 노 모어’,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미세먼지나 유아교육 현황 등 사회문제에 대해 엄마로서, 또 의회활동을 한 시민운동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하나 전의원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총선에는 공천에 실패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은 총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란 정치하고 낙선했다고 정치 안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며, “21대 총선에 마음은 있고, 지금 정치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했다.

장하나 전의원이 21대 국회로 돌아와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엄마를 대변하는 장하나 정치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서,
제헌 국회 이후부터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여
여성의 정치발전과 건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기총회, 안정된 재원 마련 위한 방안 논의



한국여성의정 2019년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1일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운영개선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제21대 총선으로 앞두고 여성정치인 지원을 위해 재원마련 방안으로 법인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9년 제1차 정기 이사회, 법인운영개선안 등 논의



2019년 제1차 정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1일 11시 한국여성의정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장학사업운영 규정 및 문화사업단 운영 규정안을 승인하였다. 토의 안건으로 2018년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권고안 등 법인 운영개선을 위한 『한국여성의정 운영개선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법인운영개선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여성의정 아카데미」 지역 원장 워크숍

한국여성의정은 2월 21일, 2019년 「여성의정 아카데미」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기획을 논의하는 서울 등 8개 지역 아카데미



원장 워크숍을 가졌다. 2020년 총선을 비롯한 정치환경 변화에 맞춰 예비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을 위한 「기본과정」, 지난 선거 낙선·아카데미 수료생 등 원외 여성정치인 간담회와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교육 등을 작년에 이어 계속하기로 하였다. 2019년에는 여성정치인이 적은 강원과 울산 아카데미를 시범운영하여 예비 여성정치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아카데미마다 전직 여성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원, 학계, 여성 및 시민단체 등 아카데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여성정치인과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의정 장학사업 첫 삽, 15명 여성의정 장학생에게 증서 전달

2018년 시작한 여성의정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제1기 여성의정 장학생 1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월 21일에는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과 제1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여성 지방의회의원 5명(석사과정: 김경영, 김경희, 고은정, 윤미현, 장상화)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박사 과정 10명의 전·현직 여성의원(박사과정: 홍미영, 왕성옥, 석사과정: 강한옥, 구정화, 김미숙, 서현옥, 신민희, 윤영희, 정선희, 한향숙)에게 증서를 전달했다.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정치리더로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축하하고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는 국내 최초로 의회정치인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과정으로 의회정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법학, 행정학, 정치학을 아우르는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중앙대학교대학원 장학생 부총장 등 교수와 법인 임원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장학생과 법인 임원

『세상을 바꾼 여성정치인들』 1, 2권 출판

한국여성의정은 지난 1월 여성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조명하고 여성의원 개인의 역동적인 삶을 기록하는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 『세상을 바꾼 여성정치인들』 1, 2권을 출간하였다.

여성의정인물사는 여성정치인의 의정활동과 삶의 역사를 기록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성찰을 통해 차세대 여성정치인들에게 역할모델을 보여준다. 남녀동수 의회를 앞당기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역량 확대에 기여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제1권 개척기』 편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국회의원 임영신 의원을 시작으로, 척박한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열어 나가는 제8대 국회까지 여성의원 10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부록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의원 여성의원 7명,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여성의원 4명을 포함하고 있다.

『제2권 과도기』 편은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도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동한 제9대 국회부터 제14대 국회까지 여성의원 22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8년 정기국회 여성국회의원의 의결 법안

2018년 정기국회 이후 12월 31일까지 의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여성국회의원의 법안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22명의 여성의원인 대표발의한 법안 중 49개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여성의원인 증가하면서 사회적 현안에 관심 또한 증대되어 여성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 노동,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입법능력을 발휘하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2018-11-29)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사,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2018-12-27)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2018-11-23)



김승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2018-11-23)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20인, 2018-09-20)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

-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1인, 2018-12-07)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2018-12-27)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018-12-27)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018-11-23)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2018-09-20)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2018-09-20)



박선숙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2018-12-0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12-0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11-23)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2018-12-07)



박주현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2018-12-27)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 2018-12-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9-2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7-26)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7-2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11-2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12-07)



손혜원 무소속, 서울 마포을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2018-09-20)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2018-11-23)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2018-12-07)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2018-09-2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2018-12-07)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18-11-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21인, 2018-12-27)



송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2018-11-29)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1인, 2018-12-07)



신보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2018-11-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2018-09-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2018-09-20)



이혜훈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2018-09-20)



임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09-2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2018-12-07)



전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2018-09-20)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2018-12-27)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12-0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12-27)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2018-11-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11-23)



조배숙 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2018-12-07)

2018년 정기국회 여성국회의원의 의결 법안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2018-12-07)



최연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2018-12-07)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2018-12-07)



최도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2018-11-23)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11-2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18-12-07)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임원예방

한국여성의정 이연숙 상임대표는 지난 3월 21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6기 임원진의 예방을 받고 격려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여성정치인 리더십 향상을 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방여성의원의 연대로 지방의회 활동을 상호 지원하고 공유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1,060명의 전국 여성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해마다 정기세미나를 4회 개최하고 정기워크숍을 두 번씩 갖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강사를 양성하고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연수를 통해 정책 개발에 힘쓴다.

그 외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2010, 2014, 2018년 지방선거 10대 공통공약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남녀동수포럼』 창립 “이제 남녀동수다!”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자유당 전·현직 여성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남녀동수포럼』을 창립하고, 이어 “이제 남녀동수다~!!”를 주제로 창립 토크쇼를 개최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동수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 서겠다”며 포럼 창립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전 의장은 “과소대표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시켜 내년 총선에서 여성이 공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정치인의 긍정 요인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부정 요인 극복과 제거에 남녀동수포럼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녀동수포럼은 김양희(전 충북도의회 의장), 박춘희(전 서울 송파구청장), 서정숙(전 서울시의원), 송숙희(전 부산 사상구청장), 정순천(전 대구시 의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원으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출신 등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www.kins.re.kr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최우선의 KINS

KINS is a Cornerstone for a Safe Korea

KINS는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규제를 통해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여성기업인 지원 강화하겠다”

지난 4월 8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한국여성정
정 공동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박영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
업과 벤처펀드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
부지원사업 우대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장관 취임 후 16일에는 여성기업인 회사인 비와인더스
트리(이정표 대표, 1988년 설립)를 방문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행보를 보였다,

박장관은 지난 1월 25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보를 위해
서 선출직 남녀동수 관련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역대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위원장 현황

| 대수 | | 상임위원회 | 위원장 |
|----------|-----|--|--------------------------|
| 제3대 | | 사회보건위원회 | 김철안 |
| 제14대 후반기 | | 여성특별위원회 | 이우정 |
| 제15대 | 전반기 | 여성특별위원회 | 신낙균, 한영애 |
| | 후반기 | 여성특별위원회 | 김정숙 |
| 제16대 | 전반기 | 여성특별위원회 | 이연숙 |
| | 후반기 | 여성위원회 | 임진출 |
| 제17대 | 전반기 |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김희선 이미경 김애실 |
| | 후반기 | 문화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조배숙 문희 |
| 제18대 | 전반기 |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 김영선 추미애 신낙균 |
| | 후반기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전재희 최영희 |
| 제19대 | 전반기 |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박영선 김상희 |
| | 후반기 |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나경원 김영주 유승희 |
| 제20대 | 전반기 |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남인순 김현미 |
| | 후반기 | 행전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인재근 박순자 이혜훈 전혜숙 |



김철안
(2선, 제3~4대)
* 정당 자유당
* 지역구 경북 금릉

- 주요경력**
- 1939년 일본 메이지대학 정치학과 교외생 수료
 - 1946년 독립촉성애국부인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
 - 1956년 제3대 국회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여성최초)
 - 1956년 대한부인회 최고위원



이우정
(제14대)
* 정당 민주당
* 지역구 전국구

- 주요경력**
- 1953년 한국신학대학 교수
 -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 1994년 제14대 국회 여성특별위원장(여성최초)
 - 1998년 민주화해협력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신낙균
(2선, 제15대, 제18대)
* 정당 민주당
* 지역구 전국구, 비례대표

- 주요경력**
- 1991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 1996년 제15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1998년 문화관광부 장관
 - 2008년 제18대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제15대)
* 정당 새정치국민회의
* 지역구 전국구

- 주요경력**
- 1984년 신민당 인권국장
 -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전라남도 화순지구당위원장
 - 1997년 국회 원내 부총무
 - 1998년 제15대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출
(2선, 제15~16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경주, 비례대표

- 주요경력**
- 1965년 국제신문사 정치부 기자
 - 1987년 아세아 대표이사
 - 1991년 한국여성로타리클럽연합회 회장
 - 2002년 제16대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애실
(제17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비례대표

- 주요경력**
- 198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997년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2004년 제17대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8년 한국여성의정 이사



김영선
(4선, 제15~18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비례대표,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 주요경력**
- 1991년 변호사
 - 2006년 한나라당 당대표
 - 2008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2011년 국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3선, 제14~16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전국구, 비례대표

- 주요경력**
- 1998년 제15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2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 200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2015년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희선
(2선, 제16~17대)
* 정당 통합민주당
* 지역구 서울 동대문구

- 주요경력**
- 1984년 한국여성인턴화 원장
 - 1994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
 - 2004년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2007년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여성최초)



조배숙
(4선, 제16~18대, 제20대)
* 정당 민주평화당
* 지역구 비례대표, 전북 익산시

- 주요경력**
- 1982년~1996년 검사, 판사
 - 2006년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2006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 2018년 민주평화당 당대표



추미애
(5선, 제15~16대, 제18~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서울 광진구 을

- 주요경력**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5년~1995년 판사
 - 2008년 제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여성최초)
 - 2016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연숙
(제16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비례대표

- 주요경력**
- 199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1997년 국무위원 정부 제2장관
 - 2002년 제16대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8년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이미경
(5선, 제15~19대)
* 정당 민주통합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은평구

- 주요경력**
-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1994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 2004년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여성최초)
 - 2008년 민주당 사무총장
 - 2013년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문희
(제17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비례대표

- 주요경력**
- 1995년 한국약사회 회장
 - 1996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 2006년 제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2010년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전재희
(3선, 제16~18대)
* 정당 한나라당
* 지역구 전국구, 경기 광명시

- 주요경력**
- 1994년 광명시장
 - 2007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 2012년 제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제18대)
* 정당 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 ※ 주요경력**
- 1993년~2002년 내일신문 대표이사
 - 1995년 청소년을 위한내일여성센터 회장
 -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2010년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4선, 제17~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구로을

- ※ 주요경력**
- 1983년~2004년 MBC 보도국 기자, 앵커, 경제부 부장
 - 2012년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성최초)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2018년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상희
(3선, 제18~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경기 부천시소사구

- ※ 주요경력**
- 2005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2008년 통합민주당 최고의원
 - 2012년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2016년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4선, 제17~20대)
* 정당 자유한국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동작구을

- ※ 주요경력**
- 1995년~2002년 판사
 -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
 - 2010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 2015년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여성최초)
 -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주
(3선, 제17대, 제19~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갑

- ※ 주요경력**
- 2008년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 2014년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2016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희
(3선, 제17대, 제19~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성북구갑

- ※ 주요경력**
- 2012년 국회 민주화포럼 공동대표(행정학 박사)
 - 2013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4년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2015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9년 더불어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위 위원장



남인순
(2선, 제19~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송파구병

- ※ 주요경력**
- 200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2016년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현미
(3선, 제17대, 제19~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경기 고양·일산서구

- ※ 주요경력**
- 1985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 본부장
 - 2016년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최초)
 - 2017년 국토교통부 장관



인재근
(2선, 제19~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서울 도봉구갑

- ※ 주요경력**
- 1972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1989년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부위원장, 의장
 - 2012년 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대표
 - 2018년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여성최초)



박순자
(3선, 제17~18대, 제20대)
* 정당 자유한국당
* 지역구 비례대표, 경기 안산단원을

- ※ 주요경력**
- 1995년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 2008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 2017년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원장(행정학 박사)
 - 2018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여성최초)



전혜숙
(2선, 제18대, 제20대)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광진구갑

- ※ 주요경력**
- 1998년 경북약사회 회장
 - 2009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 2017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8년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혜훈
(3선, 제17~18대, 제20대)
* 정당 바른미래당
*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 서초구갑

- ※ 주요경력**
- 199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경제학박사)
 - 2011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 2017년 바른정당 당대표
 - 2018년 제20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여성최초)

편집후기

어느새 『여성의정』 제7호를 선보입니다.

만개한 봄꽃이 넘실대는 여의도지만 여성정치 1번지에는 아직 꽃망울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더딘 가운데 한 송이씩 꽃은 피어나고, 물줄기를 대는 마음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질의 여성정치 70년을 맞아 도약의 비전을 어떻게 펼쳐보일지가 이번 호의 미션이었습니다. 70년 여성정치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여 남녀동수 의회를 재 다짐 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여성단체장 좌담회로 여성계의 공동 전략을 모색해 보았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5월의 햇빛은 먼저 가족을 향해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전형의 가족상이 해체되고 다시 모이는 이 지점에서, 저 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족정책의 갈 길을 살피고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깁니다. 남성 정치인이 말하는 가족의 내조는 여성정치인에게서는 부러움이기도 합니다.

한국여성의정이 포부 있게 시작하는 장학사업이 첫 삼을 땀습니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소중하고도 담대한 발걸음을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편집은 요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제일이지만 볶음인지 튀김인지 요리법에 따라 색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테이블에 차려낼 때도 멋진 꾸밈을 위해 여러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디지만 단단하게 피어나는 꽃송이처럼, 호를 거듭할수록 깊이 있는 여성정치 공간 『여성의정』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의정』 구독신청서

(사)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원 산하 법인으로 제헌 국회 이후부터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여 여성의 정치발전과 건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여성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여성정치인의 교육 및 네트워크의 장으로 매년 3회 『여성의정』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기관지명 : 『여성의정』
2. 발행 : 연 3회
 - 정기 2회 : 5월, 12월 / 특집 1회 : 8월
3. 정기구독료 : 연 20,000원(7,000원/권)
 - 입금계좌 : 농협 301-0225-7334-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4. 신청서 보내실 곳 : kwpn2013@daum.net / Fax) 02-784-0717
 - 문의: 사업팀장 이은옥(02-786-5050)

※ 납부관련 서류(계산서 발행 등)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청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길이 좋아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람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착공 및 개통계획

| 구분 | 구간 | 연장 | 시기 |
|----|---------|---------|------------|
| 착공 | 양평 - 이천 | 19,37km | 19년 10월 예정 |
| | 세종 - 안성 | 57,96km | 19년 12월 예정 |

| 구분 | 구간 | 연장 | 시기 |
|--------|----------|--------|------------|
| 준공(확장) | 서평택 - 평택 | 10,3km | 19년 12월 예정 |

고속도로 건설은 계속 됩니다